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강 윤 희

2012년 2월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전

강 윤 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강윤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년 2월

Research on Dongjaseok (stone statues of children) in Jeju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Yun-Hee,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Dong-Je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2.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search on Dongjaseok (stone statues of children) in Jeju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stone seals of graves crea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consisted of Muninseok, Muinseok, Sijaseok, and Dongjaseok. Among these statues, Dongjaseok are placed to the nearest to the tumulus and hence it play the role of a servant, who makes the offerings for the spirit of the deceased.

Dongjaseok are a kind of stone seal which cannot be found at the royal graves but have been witnessed in memorial services held before the nobility's graves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Therefore, Dongjaseok are a projection of the nobility's pride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are not influenced by the Buddhism.

However, one cannot affirm that the Jeju Dongjaseok were directly influenced from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as the shapes of the Jeju Dongjaseok are different from the Dongjaseok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origins of the Jeju Dongjaseok can be seen in the stone seal of a prince in Hawon-dong, the stone seal of a Tamna castle lord in Hwabuk-dong, and the double topknot Dongjaseok and granite Muinseok created during the 15th century. Although, the stone seal of the prince in Hawon-dong and the stone seal of the Tamna castle lord in Hwabuk-dong should be exempted from the discussion in this thesis as their recorded history is inaccurate. Eventually, the Jeju Dongjaseok has originated from the granite Muninseok and the stone seals from the 15th century; introduced from

the mainland of Korean peninsula. Then they developed into the Jeju style basalt Muninseok in the 16th century and progressed into the 17th century's trend, where Muninseok and Dongjaseok wer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Dongjaseok from the 17th century have a variety of hair styles; a) bold head , b) a neat bun, c) braided hair and d) double topknot. Also the clothing of the Dongjaseok is expressed relatively simply on the belt and sleeves. The face of the Dongjaseok itself does not have diversified features but detailed expression can be seen from its bowing posture and clasped hands. During the 18th century, the details of the top jackets were expressed in more details and these details included belts, sleeves and jacket ties. Also the 18th century saw the beginning of the diversified expressions on the Dongjaseok with spears, spoons and snakes are added to the statues. In the 19th century, the special clothing and hair style features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y were sometimes preserved but in a rather simplified version or even omitted.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Jeju Dongjaseok culture in the 17th century reflects the situation at the time and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other areas' Dongjaseok. This unique characteristic continued into the 18th and 19th century.

By closely looking at Jeju's social circumstances in the 15th and 16th century, the meaning applied to the Dongjaseok can be easily understood.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Dongjaseok in the 15th century, the confucian funeral culture in Jeju was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few native Jeju noblemen including Deuk-Jong Ko. During the 16th century, the basalt stone seals were first introduced and the funeral culture in Jeju was mainly controlled by the exiles to Jeju and government officials. In addition, the Jeju Dongjaseok and Muninseok were established simultaneously during the 17th century and it is assumed that there had been a shift of power from the conventional leaders to the dominant figures of the Kims of Gyeongju.

The hair styles, clothing and objects depicted in Jeju Dongjaseok culture are all based on real people who lived in Jeju. These people included the male slaves in government employ, servant girls and court musicians. From these trends we can see that the central figures who initiated the Dongjaseok culture, wanted to build the stone seals of their real servants.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the Dongjaseok became more common and it started to settle in

the Jeju area as a process of expressing various symbols in a standard pattern.

As discussed above, the Jeju Dongjaseok funeral culture in the 17th century can be comprehended as the shift of power in the leading role of funeral culture. Thus, it is clearly proved that the Jeju Dongjaseok funeral culture in the 17th century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Dongjaseok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and they were continually developed until the 19th century.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	4
1. 조선시대 석인상과 동자석.....	4
2.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	10
III. 제주지역 동자석의 편년과 사례 분석.....	20
1. 동자석 편년 분석.....	21
2. 문중동자석 사례 분석	35
IV. 제주지역 동자석 형태와 묘제	45
1. 형태의 의미.....	48
2. 동자석과 묘제의 상관관계	57
V. 맺음말	59
참고문헌	63

<표> 목차

<표 1> ‘동자’와 관련된 상(像)의 흐름.....	9
<표 2> 비교대상 제주지역 문인석.....	14
<표 3> 제주지역 동자석 조사표.....	22
<표 4> 제주돌문화공원 동자석 분석 자료.....	25
<표 5> 편년, 비편년 전체 통계.....	26
<표 6> 제주지역 경주김씨문중 동자석.....	38

<그림> 목차

<그림 1> 제주지역 동자석의 초기 머리 형태.....	50
<그림 2> 『탐라순력도』 내 인물들의 머리 형태.....	51
<그림 3> 제주지역 동자석 복식의 앞, 뒷면.....	52
<그림 4> 제주지역 동자석 앞면의 손 표현과 지물.....	55

I. 머리말

조선시대 무덤의 석인상은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시자석(侍子石), 동자석(童子石)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동자석은 봉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되며 죽은 이를 공양하는 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동자석에 대한 연구는 묘제 석물의 한 부분으로 문인석, 무인석과 함께 석인으로 정의되어 연구되어 왔다. 조선시대의 동자석을 포함한 석인에 대한 연구는 동자석이 전국적으로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것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자석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도 있으나 경기도 이외 지역에 소재한 동자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¹⁾

동자석은 왕릉에는 없는 석인상으로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에서 나타나는 데, 동자석은 불교적인 영향보다는 유교적 시동의 의미가 크다는 연구가 있다. 동자석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조선의 사대부가 그들의 문화적 자신감을 형상화 시킨 것이라 한다.²⁾ 이런 이유에서 문·무인석 외 시자석과 동자석을 통해 15, 16세기 명문 사족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무덤 석물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자석보다는 문인석과 무인석에 대한 분석에 치중했기 때문에 동자석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 1)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무덤 동자석에 대해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 무덤 동자석은 같은 시기 무덤의 동자석에 비해 복식, 머리모양, 지물 등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경기지역에 비해 지방의 동자석의 세부표현이 생략된 결과이다. 이로 볼 때 중앙과 지방의 동자석은 구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국립민속박물관,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9.
김은선, 「조선시대 사대부묘 석물 이형도상」, 『경기묘제석조미술』, 경기도박물관, 2010.
김이순, 「조선시대 능과 묘의 석물 비교」, 『경기묘제석조미술』, 경기도 박물관, 2010.
김혜림, 「조선시대 동자석인 연구 -16~18세기 서울·경기지역의 원과 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은주, 「석인상에 나타난 복식 연구」, 『경기묘제석조미술』, 경기도 박물관, 2010.
정해득, 「조선시대 경기지역 묘제석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51권, 조선시대 사학회, 2009.
김은선, 「시흥 진주강씨 묘역의 이형석인에 대하여」, 『경기도 박물관 관보』, 경기도박물관, 2002.
전나나, 「조선왕릉 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용인시, 『용인의 분묘문화』,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이진희, 「조선전기 능묘석물 배치와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석인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우림, 「용인지역 분묘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용인대학교박물관 전통문화연구소, 2001.
김우림, 「서울·경기 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영아, 「안동지역의 조선시대 묘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경기 이외 지역의 동자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과는 달리 제주지역의 동자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즉, 서울·경기지역의 동자석에 비해 제주지역의 동자석은 머리, 복식, 지물에서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제주지역 동자석만을 다룬 연구는 일반적으로 조형성에 중심을 두고 접근한 미술사적 연구³⁾와 비석을 통해 피장자의 사망, 장례일등을 중심으로 편년을 추측하고 역사적으로 접근한 연구⁴⁾가 있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동자석의 조각사적 특징과 제주도 묘제의 특징을 도출해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지역 동자석이 제작된 역사적 배경과 기원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동자석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형미의 원류를 밝혀내지도 못했다. 이러한 연구상의 한계는 동자석에 대해 알려주는 직접적인 문헌자료의 빈곤과 동자석의 제작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작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제주문화와 역사의 상징물로서 독특한 조형성을 갖는 동자석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정치한 시대와 문화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시자석, 동자석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동자석과 서울·경기지역의 석인상과의 계통적 관계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를 찾아 볼 것이다. 있다. 또한 동자석이 세워진 무덤의 주인에 대해 기록한 비석과 산담계 또는 산담접 등의 무덤의 조영과 관련된 고문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자석이 세워진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남사일록』, 『남명소승』 등의 사료 분석을 통

-
- 3) 구중희, 『능묘와 풍수문화』, 국학자료원, 2008.
이영배, 「묘지석상의 조형적 특징 고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9.
조운득, 「제주석상에 관한 연구 - 묘소의 동자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강창언·김동섭, 「제주석상에 관한 일연구」, 『탐라문화』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김영익·김민철,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분석을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탐라문화』2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김성은, 「제주도 돌문화와 조형 디자인에 관한 연구 - 동자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 엄경화, 「제주도 묘제 및 장례 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III, 국립민속박물관, 2007.
이창훈, 『제주동자석』II, 제주동자석연구소, 2008.
이창훈, 「제주동자석 고찰」, 『바람과 제주인의 삶』, 사단법인 제주학회·제주발전연구원, 2009.

해 조선후기 제주도의 사회적 상황이 동자석의 조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보겠다. 더불어 제주지역에 동자석이 집중적으로 제작된 시기가 어느 때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장에서는 자료의 빈곤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개인문집과 가사문학 등을 통해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동자석 유래와 명칭과 기능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제주지역 석인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경기지역의 시자석(侍子石), 동자석(童子石)에 대해 검토하여 제주지역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 제주지역에 남아있는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 고봉례묘 추정지 동자석, 화강암문인석, 쌍상투동자석 등의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를 찾아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편년자료 검토를 통해 17~19세기까지 제주지역 동자석의 형태적 특징과 그 흐름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특히 17~19세기 제주지역의 묘제와 서울·경기지역의 묘제를 비교해 봄으로써 제주지역 동자석의 제작시기 등을 도출해 편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 또 여기에는 조선후기 제주지역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경주김씨 김만일 문중의 일부 동자석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우세한 자의 무덤 석상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제주지역에 동자석이 출현하는 17세기를 전·후하여 17세기 제주지역 동자석출현이 가지는 의미 또한 정리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제주지역 동자석이 가진 형태가 17~19세기 제주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탐라순력도』, 『남사일록』 등의 사료검토를 통해 살펴보겠다.

이처럼 본 논문은 앞서 연구되어진 자료를 재검토하여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를 정리할 것이다. 또 동자석 200여개의 편년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동자석만의 특징을 찾고, 출현전과 출현의 시기를 분석하여 15세기부터 16세기의 상장례의 흐름과 묘제, 그리고 17세기 동자석 출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한다. 그리하여 17~19세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의 문화적 원류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하겠다.

II.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

1. 조선시대 석인상과 동자석

1) 동자석의 명칭 변천

동자석에 대한 문헌 기록은 그리 많지는 않다. 지금까지 찾아낸 기록들을 살펴보면 동자석은 동자석인(童子石人), 석인(石人) 등으로 기록되었다. 무덤 앞에 배치하는 석인상과 동자석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들을 보면 대략을 살필 수 있다.

- (1) (중략)…나를 인도하여 그 산기슭을 오르니 그 위에 상하로 고분(古墳)이 있고 말뚝 같은 나무들이 어지러이 자라나 있었고 아래 무덤 섬돌 옆에 동자석인 하나가 세워져 있었으나 표석, 상석, 및 좌편 석인은 그곳에 없었다…(하략)⁵⁾
- (2) 그리고 능상(陵上)의 분광(墳壙)에 붙여 배치(排置)하는 지대(地臺)·박석(博石)·난간석(欄干石)·혼유석(魂遊石)·인만석(引滿石) 등은 기한 안에 배치할 수 있겠으나, 그 나머지 외면(外面)에 배열하는 문무석(文武石)·양마석(羊馬石)·망주석(望柱石)·동자석(童子石) 등은 결코 기한 안에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인데, 옛날에도 이렇게 해 놓았다가 성분(成墳)한 뒤에 추후하여 설치한 경우가 있으니, 전례에 의거해서 역사를 동독(董督)해야겠습니다.⁶⁾
- (3) 석인(石人) 2쌍은 중첩된 것 같으니 1쌍은 동자석(童子石)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

5) 안덕린, 『사촌집』 권지일 잡저 통경중문(沙村先生文集卷之一 雜著 通京中文). 「萬曆二十年三月十九日 今年春 因人所傳 石表顛落瓶山之麓下者 有刻文云云 則果吾始祖墓表也 隨其人而訪之 至其麓下 麓之上有墳焉 麓之左近北 有墓直家焉 而石表則不可得以見矣 其人曰往年余嘗見之於此 今也則無當問 諸墓直 而所謂其塋在茲麓上 子弟觀焉 導余登其麓 則其上有上下古墳 柁木亂生 而下塋砌石邊 有童子石人一雙豎焉 而表石牀石及左邊石人則無之矣 距砌不一尋 又有上下新墳 卽里人黃認之父母所窆 而彼墓直乃黃家奴也 德麟以形勢度之 以謂古墳下則吾始祖之塋 上則配夫人之塋 而未得其詳 不敢拜」.

6) 이항복, 『백사별집』 제2권 계사(啓辭) 기해일. 「啓曰 都監諸事 計日準擬 幾及期限 而唯石役 已無所及 非工役不及 大石則輸致之際 用軍千人 數日僅致一石 自至延緩矣 其陵上所排如地臺 博石 欄干 魂遊 引滿等石 附於墳壙者 可及爲之 其餘外面排列者如文武 羊馬 望柱 童子等石 決不能及 古亦有如此 而追設於成墳之後者 自可依例督役矣 但役軍赴役者」.

하겠습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⁷⁾

(4) 능 앞에 배치하는 석물(石物) 중에서 표석(標石)을 먼저 철거하고 동자석(童子石)은 문인석(文人石)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리고 정자각(丁字閣) 역시 의처해야 할 듯하다. 모두 참작해서 시행하라.⁸⁾

위 기록들을 통해 살펴볼 때, 동자석(童子石)이 무덤 앞에 세우는 석인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동자석이라는 용어가 보이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의 『사촌집』이다. 『사촌집』은 1592년에 만들어진 안덕린의 문집이다. 『사촌집』에는 경북에 안동의 병산 산기슭에 있는 안씨 선대 묘소 석물들과 기타의 상황에 대해 적고 있다. 여기에서 동자석은 동자석인(童子石人)이라고 하고 있고, 일척(一隻)이 있다고 되어있다. 동자석인이 한 개만 있고 좌변석인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한 쌍이었던 동자석인 중 하나는 없어지고 우측에 한 개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촌집』의 기록으로 보아 16세기 이미 무덤 앞에 동자석인이라고 부르는 동자석이 한 쌍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6세기부터 동자석인(童子石人)이라는 용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2)의 이항복의 『백사집』을 보면, 이 역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기록이다. 이는 이항복이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산릉역사의 현장을 다녀오고 난 후의 견해를 쓴 글이다. 여기의 동자석은 난간석 등과 같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문무석, 망주석 등과 같이 언급되어 석인(石人)으로서의 동자석을 언급한 것이 확실하다.

(3)의 『인조실록』 내용은 최초의 원(園)인 흥경원 조성 내용을 다룬 것이다. 다음의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비교를 해본다면 동자석은 문, 무석인보다 한 단계 아래의 개념으로 세워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종은 1619년에, 부인은 1626년에 사망하였는데, 17세기 초에는 세자의 무덤에도 사대부들처럼 동자석을 조성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흥경원의 동자석은 (4)의 기록을 보아 철거된 것임

7) 『인조실록』 11권 4년(1626) 2월 3일 병자조. 「而石人二雙 似爲重疊 一雙則以 童子石人造作爲當」.

8) 『승정원일기』 10년 임신(1632) 3월 12일 기유조. 「李明漢啓曰 章陵陵號 已爲勘定 參奉官教 令吏曹 改下批宜當 且陵役 今雖權寢 而守護軍 則依各陵例 聞見望定 以準其數之意 本陵參奉處 移文 知委何 如 傳曰 依啓 前排石物中 標石爲先撤去 童子石 改以文石宜當 且丁字閣 亦似議處 竝爲 參酌施行」.

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총 15건의 원문자료가 보이는데, 1건은 석인(石人)인 동자석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동자석주(童子石柱)에 대한 내용이다.

(4)의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흥경원과 장릉에 대한 내용인데 장릉은 조선 선조(宣祖)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仁祖)의 아버지로, 1632년(인조 10) 왕으로 추존된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 구씨의 무덤이다. 원종의 무덤은 원래 경기도 양주군에 있었으며, 1622년(인조 즉위) 흥경원(興慶園)이라는 원호(園號)를 받았다.⁹⁾ 1627년(인조 5) 현 위치인 경기도 김포군으로 옮겨졌고, 1632년 원종이 왕으로 추존되면서 장릉(章陵)이라는 능호를 받게 되었다. 이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왕으로 추존되기 이전에는 왕실의 무덤이지만 동자석을 세웠다가 왕으로 추존되면서 원래 세워졌던 동자석을 철거하고, 문인석으로 석상을 바꾼 예이다. 위의 인조실록의 흥경원 조성 기록이나 이 사료에 의한다면 동자석은 문무석인보다 낮은 단계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園)까지는 동자석이 세워졌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왕릉을 제외한 대군이나 사대부의 무덤에는 동자석이 세워졌고, 동자석은 사대부 묘임을 알리는 석물 중의 하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동자석이 무덤 앞의 석인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기록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5) 주석을 우석의 위에 세우고, 다음에 동자석주(童子石柱)를 지대석의 위에 세우며, 죽석을 석주의 사이와 동자석의 위에 가로 배치하고, 차례대로 빙 둘러 그 연결된 곳에 연하여 배치하고 모두 유희를 사용하여 이를 채운다.¹⁰⁾

(6) 옛사람이 두 개의 큰 돌을 골짜기 가운데에 서로 마주 보도록 세워서 표시하였는바, 수십 보마다 이러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이름하여 동자석이라 하였다.¹¹⁾

9) 『인조실록』 인조 12권 4년(1626) 4월 1일 계유조. 「朔癸酉/上下教于 政院曰: “山所兩處, 皆當有園號 楊州山所園號 先爲備望 入啓之意 言于藝文館” 於是 藝文館以興慶 園首擬 啓下」.

10) 『세종실록』 113권, 세종28년(1446) 7월 19일 을유조. 「以柱石立於隅石之上 次立童子石柱於地臺石之上 (童子柱立石柱之間) 橫置竹石於石柱之間童子石之上 (一端接於石柱仰覆連之間 一端接於童子石柱之上) 以次周 廻連排 其接處 皆用油灰彌之」.

11) 성혼, 『우계집(牛溪集)』, 권6 잡저 잡기 (1594년). 「古人以兩石相對立于谷中以誌之 數十步必有一對 名其 石曰童子石」.

(5)의 『조선왕조실록』 세종 28년(1446)의 기록에 동자석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다. 문헌에 나오는 무덤 앞의 동자석과 같은 한자를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동자석은 능묘의 주위에 세우는 난간 사이를 지탱하는 작은 기둥이다. 동자석이라는 명칭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은 성혼의 『우계집』인데, 제6권에 동자석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는 하나, 이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 길목을 지키는 역할을 하던 석장승 등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5세기의 기록에는 동자석주 이외에 동자를 닮은 돌을 동자석으로 부르고 있다. 동자석이라는 명칭은 석인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활용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동자석주라는 기록이 15세기부터 그 이후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에 다양하게 보인다. 동자석주는 봉분을 두르는 돌 난간의 난간석에 포함되는 돌이다. 난간석은 주 기둥인 석주와 가로질러 놓인 죽석, 그리고 죽석을 받치는 돌인 동자석주(童子石柱)로 구성된다. 16세기에는 동자석이라는 용어는 무덤 앞의 무덤을 지키는 석상이라는 기능과 마을 입구를 지키는 기능을 가진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17세기부터는 마을 입구를 지키는 석상의 의미보다 무덤 앞의 석상을 칭하는 기능으로 거의 굳어졌다. 그러나 17~18세기의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는 1632년의 기록 외에는 모두 난간석의 기둥을 뜻하는 동자석주(童子石柱)로 쓰인다. 그렇지만 다음에서 살펴 볼 19~20세기의 자료들은 모두 무덤 앞의 석인상으로서 동자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역대가사문학¹²⁾에서도 동자석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동자석이라는 용어 자체는 개인문집과 가사문학에서 역시 확인 할 수 있다. 가사문학에서는 감여가, 금강산유산록, 현급봉학산성묘, 성거사답산부, 마상가 등에서 보인다.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자료이다.

(7) 주후(主後)의 호형석(虎形石)은 멸문(滅門)하다 그메자손(子孫) 귀(貴)하다 동자석(童子石)은 장원(壯元)도 마니난다.¹³⁾

(8) 층층바위는 백옥이오 섰는 돌은 / 사람의 형상이라 천불이 열좌한듯 / 장사가

12)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한국고전종합db 참고)

13) 『성거사답산부』 (한국고전종합db 참고)

철갑을 입고 적진에 대하는 듯 / 장군석 동자석은 기치(旗幟)를 잡고 / 세월을
잊었거든 풍우를 잊을소냐.¹⁴⁾

(7)~(8)의 기록에서처럼 동자석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두루 쓰이다가 후대로 올수록 제한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2) 조선시대 석인상과 제주지역 동자석의 관계

석인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분묘의 치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겨났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모태가 되는 동자석과 시자석은 15세기부터 출현하였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자석은 대개 아이 모양의 쌍상투를 쓴 석상이며, 상석에 근접하여 좌우로 배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죽은 이를 공양하는 제사 등의 행사에 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석물로 여겨진다. 동자상은 원래 도교에서 시중드는 시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불교에서는 꽃을 뿌리는 화동, 산신도의 시동 등 다양한 의미의 동자상이 있다. 이러한 동자상이 사대부 묘역 동자석의 도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¹⁵⁾

시자석은 경기지역 사대부 묘에서 15~16세기 전반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도상이다. 본고에서 동자석 이전에 나타나는 시자석까지 다루는 이유는 시자석의 형태가 제주지역 동자석 초기의 형태와 의미에 많은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시자석은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두 손은 공수한 채 머리를 공손하게 조아리고 묘주의 명령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듯 한 자세이다. 동자석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쌍상투 등의 머리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입모를 쓰고 있는 점과 복식이다. 시자석인은 조선 전기 일부 문중 묘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장수황씨, 창녕성씨, 진주강씨 묘역이고 시자석인과 도상이 유사하지만 검을 들고 있는 무석인이 있는 교하노씨 묘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세종, 성종, 중종대에 제상을 여럿 배출하고 문묘에 배향된 명문 사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 시

14) 『금강산유산록』, (한국고전종합db 참고)

15) 김은선, 「조선 사대부묘 석물의 이형 도상」, 『경기 묘제 석조 미술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기도박물관, p.41.

기는 조선의 사회제도가 정비되는 시기이고, 16세기 사림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뿌리내리기 직전이며 주자가례가 사회전반에 보편화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따라서 조선 초기 국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최상위 계층은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수한 솜씨를 보이는 의장석물로 피장자와 문벌의 권위를 한껏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시자석인의 복식에서 15~16세기 전반에 착용된 실제의 포가 묘사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실적 묘사는 실제로 시중드는 자를 거느리고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의 표현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석인상 중 무덤 앞에 아이 모양으로 만들어 세운 ‘동자석’, 무덤 앞에 세워졌으나 시중드는 사람 모양의 석인상인 ‘시자석’, 제주석(石)으로 만들어지며 제주 고유의 조형미를 갖춘 ‘제주지역 동자석’의 출현과 제작시기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동자’와 관련된 상(像)의 흐름¹⁶⁾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시자석인	■	■				
동자석인		■	■	■		
불교 명부전 동자상			■	■		
제주지역 동자석			■	■	■	■

(자료 : 『불교동자상』, 『경기도묘제석조미술』, 『무덤』, 『제주동자석』 참고)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자석은 15세기에 일부 제작되기 시작하여 16, 17세기에 유행하고 18세기까지 만들어지나 더 이상 아이모양의 석인상이 아닌 문인형 동자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기록에서 사대부의 무덤에는 18세기 후반까지도 동자석이 세워졌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9) (중략)…인석(人石)을 최근에 설치하지 않는데 선현의 꿈 때문이다. 크면 큰

16) 편년이 정확한 개체를 중심으로 하였고, 불교동자상은 죽음을 관장하는 명부전 동자상을 중심으로 하였다. 참고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묘제석조미술 (上) - 조선전기 도판편』, 경기도박물관, 2007.
 —————, 『경기도묘제석조미술 (下) - 조선 후기 도판편』, 경기도박물관, 2007.
 국립청주박물관, 『불교동자상』, 술, 2003.
 국립민속박물관, 『죽은 자, 또한 산자의 공간-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9.
 —————,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10.

귀신이 접신하고 작으면 작은 귀신이 접신하여 시향(時享)하는 제수음식을 다 투는데 귀신의 말이 작으면 쉽게 제압한다는 것이 바로 그 꿈이다. 중고(中古)에는 동자석을 세웠는데 최근에는 또 그것을 폐지하였다. …(하략)¹⁷⁾

(9)의 기록은 동자석이 18세기 이전부터 세워졌지만 최근에 폐지하였다는 뜻이다. 일반민이나 사대부 중에서도 동자석을 세운 경우가 18세기 중·후반에 있을 수 있으며 또 건립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철거한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역 동자석은 15세기 유교적 상징례가 제주에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화강암 문인석이 육지로부터 들어오고 이후 문인석과 동자석이 형태는 비슷하고 크기만 다르게 같은 무덤에 함께 세워지면서 일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라 판단된다. 또 서울·경기지역의 동자석이 소멸 후 문석인이 남은 반면, 제주지역 동자석은 문석인보다 더 오래 단독으로 20, 21세기까지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행시기의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선시대 동자석과 제주지역 동자석은 명칭이나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형태에서 차이가 보인다. 머리 형태와 복식, 지물에서 제주지역 동자석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쌍상투의 머리형태가 일부 전해지기는 하나 육지 동자석이 제주지역 동자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유교 석물로서 무덤 앞에 배치되는 석물로서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동자석에 나타나는 복합적 문화의 형태는 제주지역 동자석에 전해지지 않는다.

2.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

제주지역의 동자석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서울·경기지역 동자석과 큰 차이를 가진다. 이는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가 서울·경기지역 동자석에만 기인하지 않

17) 이유원(1814~1888년), 『가오고략』, 책십삼 월성리유원경춘저 잡저 서수장록후 「人石之近日不設 因先賢之夢 而 大則接大鬼 小則接小鬼 爭時享之需 而神之言小則易制者 卽其夢也 中古皆立童子石 近又廢之 長明燈 禮葬 山三年內 長燈如國陵焉 近則但設之而已」.

는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에 대해 논할 때, 유교식 석상 배치와 문인석의 기원은 서귀포 하원동 왕자묘의 석인상이 참고 된다.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은 제주도 석인상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 유교식 상장례 문화의 시작과 함께 문인석이 세워졌는데 하원동 석인상이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이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은 화북동 탐라성주 묘(고봉례묘 추정지) 발견 동자석이 일반적으로 참고 된다. 그러나 이 두 석인상의 경우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비석이 없어 기원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고려시대의 장법을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고려시대의 제주도는 석인상이 세워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조선 시대에 와서야 석인상이 세워지므로 원나라와 고려·조선의 유배인, 목사, 지배계층, 낙향한 입도시조 등의 여러 계층의 문화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주지역 석인상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

1)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

유교식 석상 배치의 기원과 관련된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하원동 왕자묘는 탐라국의 지배세력이었던 왕자의 묘인지, 아니면 원의 양왕자와 관련된 분묘인지 정확치 않다.¹⁸⁾ 하원동 소재 왕자묘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0) 대정현 동서오십리 궁산 내 가래촌에 세 개의 계체가 있으며 백작약이 심겨져 있다. 이곳은 탁라왕자 소유의 궁궐터이며 두 번째 도읍지이다.¹⁹⁾

18)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창언, 「제주석상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1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 하원동 분묘군』,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0.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2001.

김유정, 『제주의 민속문화 -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7.

김인호, 「제주도 고분에 대한 일견해」, 『제주도사연구』제4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문기선, 「제주 최초의 석상 조성적 연구보고」, 『인문학연구』10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이창훈, 『제주동자석 고찰』, 제주발전연구원·사단법인 제주학회, 2009.

19) 문기선, 「제주 최초의 석상 조성적 연구보고」, 『인문학연구』10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pp.155~156 재인용. 이원조, 『탐라지』 <대정현고적 왕자묘조>. 「在縣 東西五十里 弓山兩川之間 三墓階砌尙存 兩隅有白灼藥 加來村裡 又有宮闕道礎 疑是毛羅王子 所都處 俗傳山房爲 第二徒云.」

(11) 왕자묘는 대정군 동쪽 사십리 가래촌 궁산내에 있고, 탁라왕자가 있던 도읍지이다.²⁰⁾

(12) 궁산에 세 개의 방묘가 있는데 계체가 남아있고 묘 양쪽에 백작약이 심겨져 있다.²¹⁾

(10)~(12)의 주요 내용은 대정현 동쪽 40~50리 사이 궁산 내에 3개의 묘가 섬돌을 이루어 위치해 있으며, 주위에는 백작약이 심어져 있다는 내용이다. 궁산 부근에 3개의 왕자묘가 있었던 것은 문헌으로 확인되나, 석인상에 대한 기록은 없다. 문헌상으로는 차치하고 이 왕자묘에 세워진 석인상의 형태로만 비교를 해 보자면, 이 석상은 문인석으로 분류되고 있다. 홀을 가지고 있으며, 옥대를 차고 있기 때문이다. 동자석에서도 홀 형태의 직사각형을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머리 형태 등으로 문, 무인석이 아니라 동자석으로 분류가 된다. 이 석인상은 제주지역 동자석이나 문인석에서 보이는 홀로 추정되는 직사각형의 막대기 대신 봉 같은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다. 이 석상을 문인석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머리 부분과 복식인데 머리 부분이 쪽진 머리라든지 댕기머리 또는 그 외의 형태를 추정할 수 없고 머리 앞 쪽으로 관 형태가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옮겨져있는 한 기에서만 이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데 관 윗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히 관모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관 형태의 부분과 홀 그리고 허리 뒤의 마디가 있는 옥대를 표현한 것 같은 형태로 문인석으로 통칭되어 불리고 있다.

이 석인상은 1914년 사진에는 대칭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목이 없는 문인석 1기가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1기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이전되어 있다. 이 석인상은 귀 모양이 제주도 문인석들처럼 반원형이 아니라 사실적인 3자를 거꾸로 2개 겹쳐놓은 것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나머지는 전자의 보고서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하원동 왕자묘 자리에 있는 문인석상은 마모 상태가 심하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문인석을 새롭게 조각해 세워놓았다. 원

20) 문기선 앞의 글, 『호남읍지대정현조』, pp.155~156. 「王子墓 在郡東四十里 弓山兩川間 三墓階砌猶在 兩隅有白灼藥 加來村裡 又有宮闕道礎疑是 毛羅王所都處也。」

21) 문기선 앞의 글, 이응호, 『탁라국서』, 1931, pp.155~156. 「弓山四有三方墓 階砌尙存 兩隅有白灼藥 加來村裡 有宮闕道址 又軍山內有一圓墓其石築甚固焉 按茲兩處荒墳久矣 蓋爲梁高夫文四性而 居是邦者 宜不若契然矣。」

래의 하원동 왕자묘와 복식, 손 모양, 흠의 길이 등을 비슷하게 하여 조각했으나 전체적인 신체의 비례가 균형 있게 조각되었고, 길이도 길다. 육지부에서 석상들이 대부분 화강암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반면 제주지역 동자석은 제주석을 이용한다. 화산분출물의 결과로 생성된 현무암계 석상들이 재료로 사용되며 현무암, 조면암, 안산암, 용암석 등이 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현무암 계열의 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서귀포시 지역은 현무암, 조면암의 분포가 우세하고 용암석과 안산암 계열이 뒤를 따른다.²²⁾

2010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하원동에 있는 석인상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하였다. 자연사박물관의 석인상은 조면현무암으로 제주도 돌이 확실하고, 하원동 왕자묘 내에 있는 문인석의 암질도 조면현무암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²³⁾ 이 조사를 통해 하원동 왕자묘 문인석은 적어도 육지에서, 또는 원나라에서 조각하여 가져온 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 석공이나, 원나라에서 온 석공이 제주도 내에서 조각한 것이 된다.

두 번째로 제주도 돌로 조각한 문인석과 화강암의 문인석을 하원동 석인상과 비교해보았다. 비교대상 제주지역 문인석은 비석을 통하여 절대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석상들이다. 피장자가 사망한 시기에 세워진 것이 아닌 후대에 후손에 의해 세워진 것일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피장자가 사망한 시기에 세워진 석물들로 결론을 내리고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각 박물관에 소장된 절대연대를 알 수 없는 문인석들은 같은 시기의 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자료로 썼다.

먼저, 비교대상 제주지역 문인석 일부는 <표 2>와 같다.

제주지역 문인석들을 조사하여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과 비교분석한 결과 귀모양과 복식, 관모, 흠의 길이와 손 모양 등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제주도 석공이 만들어낸 문인석들과 다른 모양을 가졌다는 말이 된다.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의 귀모양은 3자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듯 한 모양이 2개가 겹쳐있다. 제주형 문인석들은 보통 반원형이나 타원형의 귀를 가지고 있다. 3자형의 귀를 가

22) 이창훈은 그의 연구에서 동자석과 문인석을 합쳐 '제주동자석'이라 부르고 있다. 또 1998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보고서에서는 제주 지방의 암석은 조면암질 안산암과 현무암으로 조면암질은 산방산 예촌당, 월라산, 신고 등으로 동일 구조 선상에 분포하고 있고, 현무암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나 지역에 따라 비현정질이거나 다공질이고 기공이 적고 많을 뿐이라고 서술한다.

23) 지질학박사 안웅산의 도움을 받았다. 표면의 석질이 오랜 풍화로 변하여 표면의 석질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진 문인석들도 있으나 하원동 문인석 같은 귀의 형태를 가진 문인석은 드물다.

<표 2> 비교대상 제주지역 문인석

	사망연대	구분	묘주/처	직위	지물	복식	귀모양
1	1441 / 1441이후	15C	한계로 / 남평문씨	소위장군	홀	-	타원형
2	1632	17C	김만일	승정대부	공수	-	반원형
3	1668	17C	김대길 / 곡산강씨	감목관	공수에 홀	-	타원형
4	1698 / 1706 / 1642	17C	김반 / 탐라양씨 / 창녕성씨	통정대부	공수에 홀	복두공복	반원형
5	1758 / 1750	18C	고윤익 / 군위오씨	향교훈장	위아래로 배위에 손	-	반원형
6	1768 / 1787	18C	김응현 / 양천허씨	통정대부	공수에 홀	복두공복	반원형/수염
7	1712 / 1699	18C / 17C	김진혁 / 군위오씨	감목관	공수에 홀	복두공복	반원형
8	1760	18C	김혜우 ²⁴⁾	선략장군	공수	복두	허리띠
9	1810 / 1816	19C	김명환 / 경주김씨	유향좌수	손 모아서 위로	복두	반원
10	1914 / 1860	20C / 19C	송시언 / 경주이씨	목릉참봉	공수	복두	반원 / 수염

(자료 :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 -무덤』 참고)

제주지역 문인석들을 조사하여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과 비교분석한 결과 귀모양과 복식, 관모, 홀의 길이와 손 모양 등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제주도 석공이 만들어낸 문인석들과 다른 모양을 가졌다는 말이 된다.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의 귀모양은 3자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듯 한 모양이 2개가 겹쳐있다. 제주형 문인석들은 보통 반원형이나 타원형의 귀를 가지고 있다. 3자형의 귀를 가진 문인석들도 있으나 하원동 문인석 같은 귀의 형태를 가진 문인석은 드물다.

그 외에 서울·경기지역 사대부묘의 문인석과도 다른 형태를 가진다. 1460년에 사망한 경기도에 있는 기건 목사의 무덤에 있는 새 문인석 외에 15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구 문인석을 비롯하여, 경기도·전라도의 203개 문인석 자

24) 어머니가 감목관 김진혁의 딸인데, 어머니 묘의 석물들처럼 감목관 집안의 석물들과 머리모양에서는 유사성을 갖지 않는다. 땅은 머리 형태의 동자석과 복두의 문인석이 확인된다.

료²⁵⁾들이 그 대상이다. 귀 모양은 전라도의 17세기 고흥건 묘의 귀 모양만 내부가 3자형으로 비슷하다. 육지 사대부의 문인석들과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홀의 길이는 제주형 문인석들은 보통 20cm내외인데, 홀대의 길이가 50cm이다. 홀은 길이 약 60cm, 너비 약 6cm가 되도록 얇팍하고 길쭉하게 만든 것으로 벼슬아치가 조복(朝服)·제복(祭服)·공복(公服) 등에 갖추어 사용하였다. 1~4품관은 상아로 만든 상아홀(象牙笏), 5~9품관은 나무로 만든 목홀(木笏)을 사용했고 향리(鄉吏)는 공복에만 목홀을 갖추었다.

경기도·전라도 사대부 묘의 문인석들의 홀을 보면 홀은 대부분 턱 밑에 바짝 닿아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턱과 홀이 떨어진 예는 몇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드문 예이다. 하원동 왕자묘 문인석인 홀을 잡고는 있지만, 턱 밑에 바짝 붙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모양은 방망이를 연상케 하는 위가 둥근 모양인데, 제주형 문인석의 홀은 위아래로 직사각형의 형태이다.

또 제주지역의 본토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화강암 문인석은 대표적으로 ‘김보’, ‘고이지’ 무덤의 화강암 문인석으로 사료되는데, 하원동 문인석과는 다르며 육지 문인석과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 경주김씨 입도조 5세손 김보(金譜) 공의 묘에있는 석인상은 하원동 왕자묘의 석인상과도 형태가 다르고 제주 돌로 만든 제주지역 문인석과도 형태가 다르다.

또 제주지역의 문인석은 여말선초에 입도한 각 성씨들의 입도조가 한반도부에서 가져온 화강암의 문인석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입도조의 석물들은 그 주변에서 점차 전파되고, 화강암이 아닌 제주의 현무암 석인상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하원동 석인상은 성주·왕자 무덤의 석인상이기보다 원나라 왕자의 무덤 석인상에 가깝고 제주석(石)으로 만든 문인석들과 형태도 달라 제주에 처음 세워진 유교식 무덤 석인상일 수는 있으나 제주형 문인석의 기원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제주형 문인석의 기원은 조선시대 본토에서 들어온 화강암 석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5) <표2>의 자료, 그 외 문인석 자료는 다음 참고. 국립민속박물관,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7.

2) 화북동 탐라성주 묘 동자석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화북동 탐라성주 묘(고봉례 묘) 추정지에서 발견된 동자석이 거론된다. 고봉례는 마지막 탐라성주로 1411년에 졸했으며, 여기서 발굴된 동자석은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석인상이다. 이 동자석이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으로 거론되었던 이유는 『조선왕조실록』등에 고봉례와 그의 처(妻)에 대한 상장(喪葬)의 기록이 15세기에 등장하여 조선시대의 제주지역의 상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 동자석의 앞면은 지물이 없고, 손을 모아 위로 올린 것 같은 공수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뒷면은 쪽진 머리를 하고 있다. 이 동자석의 쪽진 머리는 어깨 아래로 내렸지만 가운데로 내린 게 아닌 옆쪽으로 비긴 모습을 하고 있다. 비석을 통해 절대 연대가 확인되는 비슷한 형태의 제주지역 동자석이 나타나기 전까지 고식으로 판단하여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처럼 되었었다. 그러나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마지막 탐라성주 고봉례묘 추정지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동자석에 대해 “간략화 된 몸체와 둥그스름한 얼굴로 보아 조선중기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²⁶⁾고 결론을 맺었다. 이것은 고봉례의 사망연대가 1411년, 즉 조선시대 초기라는 것으로 볼 때 석인상에 조선 초가 아닌 후에 후손에 의해 세워졌다는 결론인 것이다.

화북동 탐라성주 묘 추정지에서는 비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동자석은 화북동 탐라성주 묘 추정지 쌍분과는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나,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마지막 탐라성주 고봉례묘의 동자석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은 고봉례묘 추정지의 동자석이며, 이 무덤에 세워진 동자석은 제주에 유교식 매장문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의 무덤석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는 연구²⁷⁾가 나왔다. 이 연구는 발굴조사보고서는 참고하였으나 역사적 배경과 동자석의 형태적인 면을 살펴보았을 때 이 석상이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고봉례묘 추정지에서 발견된 동자석이

26) 제주대학교박물관, 「탐라성주 고봉례묘 추정지」,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p.64.

27)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2002.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 고봉례묘 추정지 동자석은 초기의 석상이기는 하지만 고봉례묘 추정지 쌍묘 앞에 세워졌던 동자석은 아니며, 15세기의 동자석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그 이유로 첫째, 출토 지점과 당시 발굴보고서 기록으로는 조선중기 이후의 석상이라는 추적만 가능할 뿐 확증이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 동자석은 제주의 장례풍습상 분묘를 이장할 시에 석상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둘째, 서울·경기지역 분묘의 동자석은 조선중기 이후에 출현하고, 분묘의 석상문화 또한 이 시기에 제주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데 그보다 앞선 1400년대 초에 동자석이 출현한다는 것은 석상문화의 유입과정 상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추정지의 석상을 고봉례의 것도 아니고 기원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²⁸⁾ 이 동자석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땅은 머리의 동자석이 아니다. 쪽을 진 머리에, 허리띠를 두른 모습이 확인된다. 특징적인 것은 땅 아래 묻기 위한 것인지, 옷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하반신 끝에 하나의 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경기도 박물관의 동자석과 김대진묘의 동자석을 비교 표본으로 제시함으로써 고봉례묘 추정지의 동자석을 17세기의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경기도 모 박물관의 동자석은 17세기 동자석이라고는 하지만 절대연대를 확인할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김대진묘의 동자석과 함께 형태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편년을 논하고 있어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김대진묘의 동자석은 극히 사실적인 모습으로 조각된 석상이라 앞의 두개의 석상과는 비교 대상으로서 적격하지 않다.

그와 비슷하게 청주한씨 묘역의 17세기 동자석과 고봉례묘 추정지의 동자석이 형태적으로 비슷하여 고봉례묘 추정지의 동자석은 15세기가 아닌 17세기라는 연구가 나온다. 청주한씨 문인석의 편년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에 중요한 부분을 점한다. 통정대부 청주한씨, 정의후인 이씨지묘의 쌍묘 앞에 세워진 동자석은 1기는 두상 부분이 없어졌고, 다른 1기 역시 훼손이 심하다. 그 중 판별이 가능한 머리가 없는 동자석은 조각 수법이나 형태로 보아 탐라성주 고봉례묘 추정지에서 발견된 동자석과 같은 양식이다. 이 동자석의 크기는 머리 없이 55cm, 넓이 29cm, 두께 20cm, 가슴에는 ‘아이 아(兒)’자가 새겨졌다. 산담은 다른 무덤과 달

28) 이창훈, 『제주동자석』Ⅱ, 제주동자석연구소, 2008.

리 앞보다 뒤쪽이 넓고, 비석의 위치 또한 이름 새긴 쪽을 뒤로 향하도록 세웠다. 현무암으로 만든 비석에는 청주한씨가 태어난 것은 1617년이고, 사망은 1692년이니 이 동자석의 제작연대는 피장자가 사망한 17세기 말의 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동자석은 탐라성주 고봉례 추정묘에 세웠던 동자석이 아니라 그 인근 B구역에 세웠던 조선 중기 2기의 무덤 중 한 무덤에 세워졌던 석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 초기에 조성된 탐라성주 고봉례 추정묘에는 처음부터 석상을 갖추지 않았고, 제주에 동자석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7세기부터라고 하였다.²⁹⁾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편년이나, 동자석에 새겨진 아이 아(兒)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청주한씨가 졸한 17세기에 새겨진 것이라고 가정해 보면, 쪽진 머리를 하고 있으나 ‘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후대에 새겨진 것이라 판단해 볼 때도 역시 쪽진 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후대의 사람들도 ‘아이’라는 의미로 이 석상을 해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고봉례 묘 추정지라고 불리는 화북동 탐라성주 묘 추정지에서 발견된 동자석은 1999년의 발굴조사 보고서의 내용처럼 조선중기의 한 형식이다. 편년자료로 확인되는 제주지역 동자석들도 17세기부터 편년이 확인되는바 이 동자석 역시 15세기가 아닌 16~17세기의 동자석의 한 형태로 추정된다.

3) 화강암 문인석

제주지역 화강암 문인석과 비석 등은 제주고씨와 입도조 묘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화강암의 석물들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나, 15세기 상장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제주고씨의 고태필의 묘에는 화강암 문인석 1쌍과 비석, 고이지의 묘에는 화강암 문인석이 1쌍이 있다. 경주김씨 김이홍의 묘에도 화강암 문인석 1쌍이 있으며 토착세력중에서 제주고씨, 경주김씨 일부와과 입도조의 묘에 주로 화강암 석상이 존재한다.

29) 김유정, <7.고봉례묘 추정지 동자석>, 제민일보, 2009년 11월 27일자.

4) 쌍상투 동자석

쌍상투의 동자석은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 피장자가 1670년대에 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의 동자석인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쌍상투의 동자석을 볼 수 없었던 점을 가만하면 동자석의 기원에 더 깊게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동자석인 문화가 제주지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자석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은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 화강암 문인석, 쌍상투 형태의 동자석 등으로 그 기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으로 알려졌던 고봉례묘 추정지 동자석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마지막 탐라성주이며 유교식 상장례로 중앙에서 장을 행한 기록으로 무덤 근처에서 발견된 동자석이 기원처럼 알려졌으나 그 양식은 17세기의 것으로 밝혀진 바, 기원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위의 분석에서처럼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 역시 조선시대 제주지역 석인상과 동자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자석 기원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는 15세기의 육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 화강암 문인석으로부터 시작되어 16세기의 제주현무암으로 만든 제주형문인석으로 전개되며 17세기에 제주지역에 문인석·동자석이 동시에 전개되다가, 17세기 말부터는 최소한의 석인상으로서 동자석만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제주지역 동자석은 위치상으로 볼 때 서울·경기지역 사대부 묘의 동자석과 같은 위치(상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시작되므로 본토의 동자석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지역 동자석의 형태적 특징이 제주지역 동자석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영향은 적으며 조선시대 제주지역 장례문화와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제주형 동자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사회적 특징은 제주지역 동자석의 복식, 머리형태, 지물 등에서 그 사실성이 확인되는데 이 사실성은 17, 18세기 제주지역 인물들의 모습이 동자석에 나타나는 것에 기인한다. 이 부분은 III, IV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Ⅲ. 제주지역 동자석의 편년과 사례 분석

제주지역 동자석의 편년을 나누는 과정은 편년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묘표를 제외하고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는 전무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조선시대 왕릉이나 사대부 묘역의 석인상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석인상이 조성된 시기별로 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양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석인상의 연대 설정이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묘주의 사망 시기나 비석의 조성시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신뢰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대부묘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석물에 관련된 오류는 피장자의 사망시기를 석물의 조성연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묘역은 이장 및 후손들의 묘역 조성 사업으로 석물이 묘역의 조성시기와는 다른 시기의 석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묘역 조사 시에 문중의 의견을 듣고, 이장과 석물의 개수(改修)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경우도 석질의 한계에 의해 100년을 주기로 묘표를 교체하는데, 육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장 및 합장, 보수 등의 경우로 묘표가 교체되면서 석물도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제주지역 동자석에서 일정한 흐름이 보이므로 피장자 사망 시기를 중심으로 석물이 조성된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개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묘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피장자의 직역, 생몰년, 3대 선조와 외조의 이름과 직역, 배(配)의 출계(出系) 및 장인의 직역과 성명, 자손의 인명과 결혼 및 가족관계, 장지, 건비년, 건비자, 찬자, 서자, 각자 등이다.³⁰⁾ 조선시대 제주도 묘표도 육지묘와 서술표기는 같다. 그래서 석물의 건립연대를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고 건비년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석물을 조성하고 개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묘표에 비석을 세운 년도와 이유에 대해서는 서술이 되나 석인상에 관련된 기록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조선

30) 엄경화, 「제주도 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Ⅲ, 국립민속박물관, 2007, p.50.

말부터 이어져오는 산담계나 산담점등의 제주도 접, 계 문화에서도 석물을 세우는 계는 볼 수 없어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을 알아내는데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서울·경기지역 동자석과 달리 조선후기에 한꺼번에 세워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편년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그러나 서울·경기지역 동자석의 흐름을 볼 때 유배인, 목사, 고봉례, 김만일 등의 지배계층 인물들을 통한 문화의 전파 가능성이 있고 시기별로 흐름이 보이므로 동자석의 구분을 묘표의 건립연대를 기준으로 잡고 제주지역 동자석의 편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사료의 부재로 시기별 특징을 정확히 나누기보다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사회상황과 연계하여 동자석이 만들어지게 된 상황을 유추해 보겠다.

1. 동자석 편년 분석

1) 제주지역 동자석 분석

비석을 통해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편년자료와, 연대를 알 수 없지만 형식을 참고 할 수 있는 비편년 자료로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동자석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1) 편년자료

제주지역에서 비교적 절대연대가 확실한 동자석은 대표적으로 <표 3>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하원동왕자묘에서 참고 되는 석인상과 화북동 탐라성주 고봉례묘 추정지에서 발견된 동자석은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비석이 없어 정확한 연대 추정은 어렵다. 다만 비슷한 형태의 석상들로 대략의 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17세기부터 나타나는 제주지역 동자석을 편년을 중심으로 일부분 정리 한 것이다.

<표 3> 제주지역 동자석 조사표³⁵⁾

	사망 연대	구분	묘주/처	직위	동자석 형태		
					머리모양	지물	복식
1	1632	17C	김만일 ³¹⁾	오위도 총부도 총관	민머리	공수	허리띠
2	1658	17C	김대진	감목관	땡은 머리 윤곽	손	포의 여밈
3	1668	17C	김대길	감목관	민머리	홀	허리띠
4	1694	17C	김시용	통사랑	쪽댕기 땡은 머리 윤곽	술잔	소매
5	1696/ 1757	17C 18C	이세훈/ 탐라고씨	가선대 부	땡은 머리 형	공수에 홀	허리띠
6	1718	18C	김성우	유향좌 수	땡은 머리	주걱형	-
7	1768/ 1787	18C	김응현/ 양천허씨	통정대 부	땡은 머리	-	-
8	1757/ 1751	18C	김진해/ 홍씨	전력부 위	-	공수(拱手)	허리띠
9	1742	18C	김치집	유향별 갑	땡은 머리 형	주걱형	뒷면 허리띠 앞면 옷자락
10	1754	18C	김택우	통덕랑	땡은 머리 형	공수(拱手)	-
11	1760	18C	김혜우	선략장 군	땡은 머리 형	공수(拱手)	허리띠 옆면 소맷자락
12	1746	18C	오세부	유향좌 수	땡은 머리 형	홀	-
13	1696/ 1757	17C 18C	이세훈/ 탐라고씨	가선대 부	땡은 머리 형	공수에 홀	허리띠
14	1708 1707전	18C	이윤/ 탐라고씨	훈련원 관관	-	공수에 홀	-
15	1888	19C	고광득	통정대 부	땡은 머리	손가락 ³²⁾	-
16	1885	19C	고방인	학생	-	요령 ³³⁾	-
17	1810 1816	19C	김명환/ 경주김씨	유향좌 수	땡은 머리/ 두 갈래 땡기	주걱형 ³⁴⁾	허리띠

(자료 :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 ‘무덤’』, 『제주동자석』 등 참고)

- 31) 김만일의 동자석은 2005년 도난 되어 김유정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32) 사료적 근거가 없어 완전히 손가락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윗부분이 둥그랗고 손잡이가 있는 지물이다. 다른 지물들도 현재의 물건에 비교하여 형체를 정의 내려 보았다.
- 33) 십자형 손잡이에 윗부분이 둥그런 원이 새겨짐. 절에서 쓰는 요령. 방울로 추정됨
- 34) 좌측동자석은 주걱이라기보다 막대 위에 작은 원하나가 새겨졌고, 우측 동자석이 현재의 주걱과 비슷한 모양이다.
- 35)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립민속박물관,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무덤(조선시대 묘제 자료집)』, 국립민속박물관, 2007.
_____, 『제주의 민속문화-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7.
염경화, 『제주도 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Ⅲ, 국립민속박물관, 2007.

1차로 분석한 동자석은 207개이다. 이 동자석은 피장자의 사망이나 장례 시기가 확인 가능하여 석물을 세운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207개 중에서 17세기 동자석은 12개, 18세기 동자석은 69개, 19세기 동자석은 83개, 20세기 동자석은 43개이다. 편년별로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머리 형태를 살펴보면, 17세기에 12개 동자석 중에 머리 형태가 확인 가능한 것은 8건이며 쪽진 머리 1건, 쪽진 머리 아래 두 가닥 땃기를 드린 머리 2건, 민머리 2건, 땃은 머리 2건, 쌍상투 1건이다. 18세기는 69개 중에서 쪽진 머리 2건, 쪽진 머리 아래 두 가닥 땃기를 드린 머리 6건, 민머리 1건, 땃은 머리형 32건이다. 19세기는 민머리가 7건 땃은 머리가 38건이다. 20세기는 민머리 7건, 땃은 머리형이 18건 보인다. 전체적으로 땃은 머리형이 89건으로 가장 많고 민머리 17건, 쪽진 머리 아래 두 가닥 땃기를 드린 머리 8건, 쪽진 머리 3건으로 집계된다. 개체수가 부족하지만 17, 18세기에는 탐라순력도에서 보이는 쪽진 머리보다 쪽진 머리 아래 두 가닥 땃기를 드린 동자석이 더 많이 보이며, 19, 20세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복식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각 시기별로 허리띠의 표현이 돋보인다. 17세기에는 허리띠 5건, 소맷자락 2건, 목깃이 1건으로 복식관련 표현 8건 중에서 70%가 허리띠이다. 18세기에는 허리띠가 34건, 소맷자락이 16건, 옷고름이 17건이다. 복식 관련 표현 67건 중에서 52%인 34건이 허리띠다. 19세기에는 허리띠가 15건, 소맷자락이 10건, 목깃 1건, 옷고름이 8건이다. 20세기에는 허리띠가 4건, 소맷자락이 2건, 목깃 1건, 옷고름이 1건이다. 육지의 동자석 복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간소화 된 것이 특징이며 허리띠, 소맷자락, 옷고름은 위에 덧입는 포(袍)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인다.

동자석 앞면의 표현을 보면, 17세기는 공수 7건, 손 표현 1건, 홀 3건, 술병술잔 2건이다. 18세기는 공수 34건, 손 표현 6건, 홀 10건, 술병 술잔 3건, 주걱 2건이며 19세기는 공수 26건, 손 표현 7건, 홀 10건, 술병술잔 4건, 주걱 2건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앞면 표현 중에서 공수가 69건, 손 표현이 25건, 홀이 42건, 술병술잔이 15건 주걱이 4건 뱀이 2건 등이다. 나머지는 삼각, 역삼각, 등 도형을 나타내는 지물들이다.

동자석 앞면의 표현을 분석해본 결과 앞면에 물건을 잡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 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공수(拱手)의 개념이 표현된 동자석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서울·경기지역 동자석과 제주지역 동자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인데, 특이한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서울·경기지역 동자석처럼 공수의 표현을 한 동자석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화북동 탐라성주 묘 추정지 발견 동자석이나 청주한씨 묘역의 동자석처럼 손의 묘사가 드러나지 않고 소매 속에 손을 넣어 마주잡아 배 위에 위치한 동자석과, 손가락의 묘사가 자세하게 되어 위 아래로 위치한 손을 표현한 동자석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는 지물이 특이한 동자석 위주로 도난 됨에 따라 현재 무덤에 남아있는 동자석들이 지물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에서 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는 동자석들이 대부분 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지물이 있는 동자석 위주로 반출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비편년자료

편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 이외에 제주도 박물관과 관광지의 동자석들을 분석한 자료이다. 제주도 박물관과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제주돌문화공원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의 동자석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³⁶⁾

편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제주돌문화공원 전체 250개 중에서 186개를 먼저 살펴보면 머리 형태는 뿔머리 153건, 쪽진 머리에 뿔머리를 드리운 것 1건, 쪽진 머리 1건, 민머리는 27건이다. 186개의 개체 중에서 182개가 머리 형태를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는 머리 표현이 없다. 복식은 44건만 보이는데 포(袍)로 보이는 표현이 4건, 허리띠가 20건, 옷고름이 6건, 소매가 14건이다. 지물은 110건에서 보이고, 공수표현은 31건이다. 지물 중에서는 홀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66건이고 창으로 보이는 것은 5건, 술잔·술병은 6건, 주걱이나 손가락으로 보이는 형은 22건이다. 그 외 마름모는 4건, 역삼각형은 1건이다.

36) 제주돌문화공원 동자석 200여기 중에서 대표적인 데이터만 실었다. (한 쌍으로 세워진 것.)

<표 4> 제주돌문화공원 동자석 분석 자료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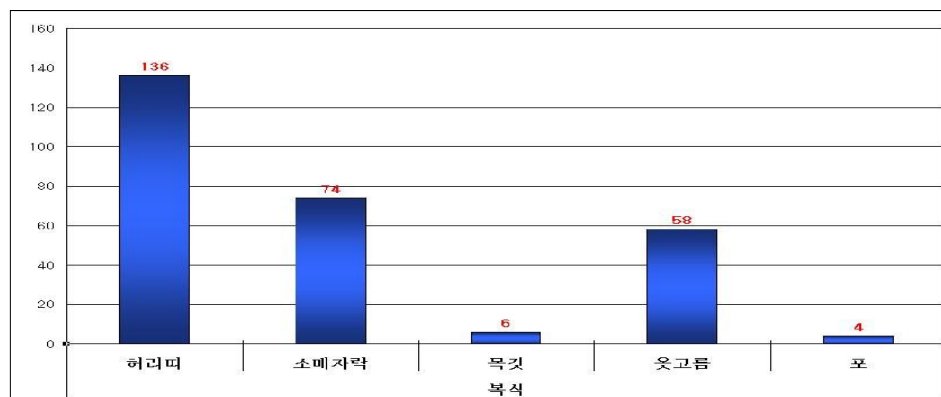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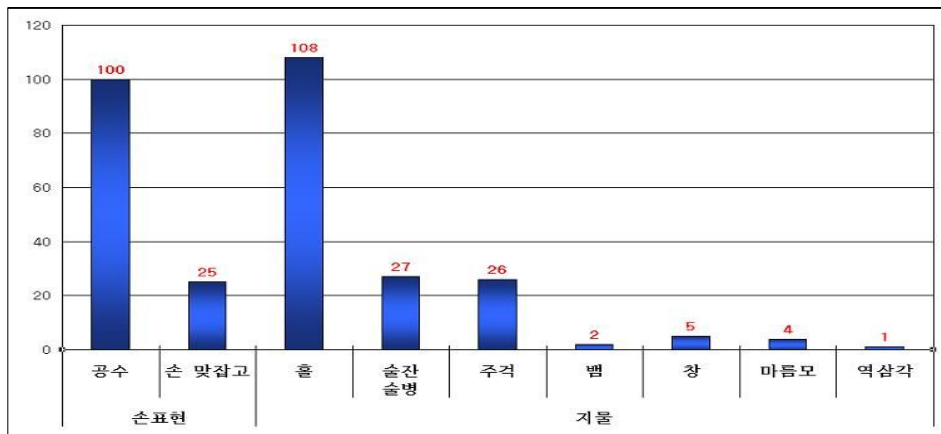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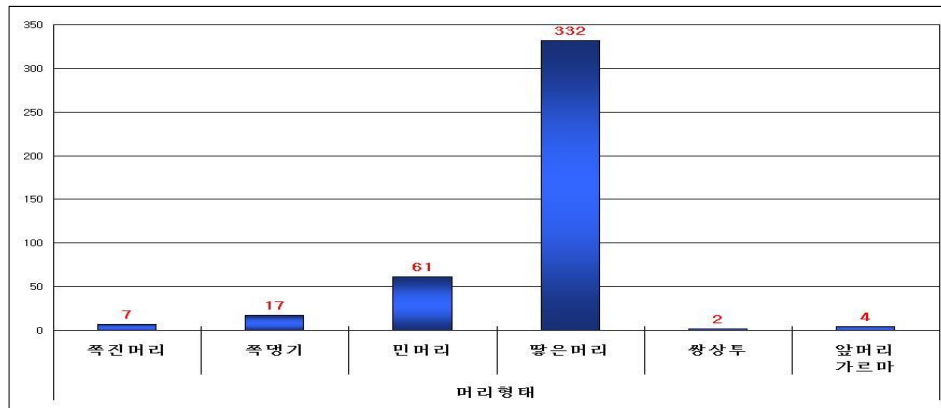
	둘레	가로	세로	동자석 형태			
				귀모양	머리모양	지물	복식
1	58	18	36	반원형	뺨은 머리	홀	-
2	65	16	47	반원형	뺨은 머리	창	-
3	62	17	46	타원형	뺨은 머리 윤곽	창	-
4	59	15	47	타원형	뺨은 머리 윤곽	술잔 추정	-
5	70	24	45	반원형	쪽진 머리에 뺨기	공수(拱手)	-
6	76	24	46	반원형	뺨은 머리	공수(拱手)	-
7	64	21	49	타원형	두 갈래 뺨기	공수(拱手)	옷고름 확인
8	69	19	48	타원형	두 갈래 뺨기	공수(拱手)	-

(자료 : 제주돌문화공원 야외 동자석 실측 자료)

뺨은 머리 형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머리의 뺨은 모습(꼬임)을 표현한 것이 24건이고, 뺨은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 윤곽선만으로 표현한 것이 58건이다. 뺨은 머리 아래 두 가닥이나 세 가닥의 뺨기를 드러낸 것이 12건이고, 둥근 머리의 표현이 있지만 뺨기나 꼬임, 쪽이 없는 것은 민머리로 분류했는데 이는 9건이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뒷면의 포를 입은 것과 같은 Y자 형이 14건이 보인다. 이 Y자형은 포의 어깨선과 뺨은 머리 모습의 윤곽을 같이 나타내기 위해 조각된 것으로 보인다. 편년을 알 수 있는 개체와 편년을 알 수 없는 개체를 합한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표 5>와 같다.

37) 비편년자료이다. 무덤 앞이 아니라 수집되어 한꺼번에 전시중인 동자석이다.

<표 5> 편년, 비편년 전체 통계³⁸⁾



38) 편년자료와 비편년자료를 합한 차트이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복식, 머리 형태, 지물로 나누어 차트를 작성했다. 복식은 대표적으로 포, 옷고름, 목깃, 소매 자락, 허리띠의 5가지 항목으로 나누었고, 앞 모습은 지물이 표현된 것과, 손 표현이 있는 것으로 나누었다. 지물의 표현에서 주걱, 창 이런 형태들은 현재의 물건들과 비슷한 형태를 표준으로 기록했으며, 반드시 그 형태라는 것은 아니다. 머리 형태는 앞머리 가르마, 쌍상투, 땡은 머리, 민머리, 쪽 땡기, 쪽진 머리로 나누었다.

2) 제주지역 동자석의 출현

이제까지 제주지역 동자석의 편년을 나눈 연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편년을 나눈 연구는 ‘도입기-발흥기-번성기-쇠퇴기’로 나눈 연구와 ‘발흥기-융성기-쇠퇴기-소멸기’로 나눈 연구³⁹⁾가 있다. 이 두 가지 연구는 제주지역 동자석이 있는 무덤 피장자의 사망시기와 석물이 세워진 시기를 기준으로 조형의 특징을 네 단계로 나눈 점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의 경우 석인상이 세워진 정확한 시기의 사료의 부재로 객관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 것이 아니라 비석의 연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편년 구분이 조형성에 편중된 한계를 가진다. 또 유교식 장법의 확산이 무엇에 배경을 두었는지 밝히지 않아 제주지역 동자석 기원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에서는 15~20세기의 사회상황과 제주지역 동자석의 특징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제주지역에 동자석이 나타나기 전 15, 16세기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동자석이 만들어진 17, 18세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시기에 따라 명확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17~18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19세기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해보았다.

또 조선후기 유교적 상장례 문화가 어떠한 경로로 들어와 제주 상장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주지역의 동자석 문화가 상장례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9) 전자는 이창훈, 「제주동자석 고찰」, 제주학회, pp.53~55의 내용이고 후자는 김유정, 「제주동자석」, 파피루스, pp.70~71의 내용이다. 전자는 도입기를 육지부의 석상문화가 유입되어 제주에 석상들이 생겨나는 시대로 말한다. 문인석이 먼저 등장하고 동자석이 후에 등장하는데 그 시기는 대략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이다. 발흥기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17세기 말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육지 분묘 석 물과 비슷한 형식을 볼 수 있으며 석물의 배열도 육지 분묘와 같은 순서로 배열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번성기는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이며, 이 시기는 동자석의 최대 성행기이다. 쇠퇴기는 20세기 후반으로 1970년대까지 제주지역 동자석이 보인다. 후자의 ‘발흥기-융성기-쇠퇴기-소멸기’로 나눈 연구는 발흥기를 15~17세기로 유교식 장법 확산과 동자석이 서서히 늘어나는 시기로 잡았다. 융성기는 유교식 매장문화가 정착되는 시기로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8~19세기까지이며, 이 시기의 동자석은 형태가 다양하고 양식적으로 제주적인 형상이 정착된다. 쇠퇴기는 20세기에서 1970년까지로 양식이 점차 각 유형으로 변한다. 소멸기는 1970년대 이후로 종류가 적고 정형화 된다고 시기를 나누고 있다.

(1) 제주지역 동자석 출현 이전의 상황(15~16세기)

이 시기는 조선 건국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나가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묘소 조성과 석물에 대한 법제적인 제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군, 옹주의 무덤이 사치스러운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종은 왕실과 직접 관계된 인물들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철거하게 하는 한편, 대군 및 대신들의 묘에 조성하는 석물의 숫자와 규격, 석인과 석상의 크기를 품계에 따라 규정하게 되었다.⁴⁰⁾

15세기는 대표적으로 1452년 졸(卒)한 황희 무덤에서 시자석인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동자석인은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16세기 전반기에 등장한 묘 동자석의 도상은 불교 동자석과 거의 흡사하다. 또 시자석과 초기의 동자석은 실제의 조선시대의 사실적인 복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초기 제주지역 동자석이 사실적인 특징을 하고 있는 것에 참고할만한 사실이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왕릉과 사대부 묘는 이미 석물 설치가 활성화 되어 사치를 규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제주에는 유교적 상장례 문화가 시작되던 시기이며 석인상의 도입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문인석이 15세기가 4개, 16세기는 2개가 남아있다.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든 제주형 문인석 외에 화강암으로 만들어 육지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사료되는 문인석이 포함된다. 15세기는 이미 조선의 저지에서 석인상이 매매되는 시기이므로 석인상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15~16세기 제주지역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3) 전 주부 문방귀는 이곳 풍속이 3년 상을 행하지 않지만, 병술년(태종 6년 1406년)에 아버지가 죽으니 3년 동안 무덤을 지키고, 상제를 모두 가례에 따라서 효도의 기풍을 세웠다. 제주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수분자(守墳者)가 3인이요, 3년상을 행한 자가 10여 인이다.⁴¹⁾

(14) 발머리에 무덤을 만든다 : 상을 치르고 백일이면 상복을 벗고 발머리를 조금 파고 무덤을 만든다. 간혹 삼년상을 행하는 자도 있다.⁴²⁾

40) 정해득, 「조선시대 경기지역 묘제석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51권, 조선시대사학회, 2009. p.67.

41) 『세종실록』 2년(1420) 정월 21일 경신조. 濟州前注簿文邦貴, 州俗不行三年喪, 歲丙戌父沒, 守墳三年, 喪制悉遵《家禮》, 以樹孝風, 鄉人效之, 守墳者三人, 行喪三年者十餘人.

(13)의 기록은 1406년 문방귀가 유교식 상장례제도를 시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8, 19세기 까지도 제주지역 상장례에서 무속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아주 빨리 유교식 상장례문화를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14)의 기록은 16세기 제주지역 상장례에 대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유교식 매장문화가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멀리 무덤을 만들지 않고 받머리에 무덤을 만드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곽의 사용은 나타나지 않는데 15세기의 기록에 1411년 마지막 성주 고봉례가 죽자 임금이 슬퍼하여 관곽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서 보이므로 관곽을 이용한 매장의 문화도 시작되었을 것이며, 관곽을 사용하며 봉분을 만드는 묘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16세기 중반의 상황이다.

남아있는 15~16세기 문인석의 개체수도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반영한다. 16세기 중반까지도 제주도는 유교식 매장문화가 보편화 되지 않아 석인상을 세우는 일도 한정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석인상은 고이지(高以知), 김보(金保), 한계로 무덤의 석인상으로 대표된다.

15~16세기는 유교식 상장례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는 시기로 무덤 석인상이 육지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는 시기다. 이 시기는 백백태자와 같은 원나라의 잔존 세력이나 ‘기건’과 같은 목사, 충암 김정과 같은 유배인에 의해 상장례가 전파되는 기록이 보이는 바, 유학에 바탕을 둔 다양한 계층에 의한 문화전파 가능성이 시작되는 시기다.

(2) 제주지역 동자석의 출현(17~18세기)

이 시기는 조선왕조가 임진왜란으로 붕괴된 경제적 토대를 복구하며 조선중화주의를 내세워 조선왕릉에 현실적인 묘제 석물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서울·경기 지역 동자석이 가장 많이 조성된 시기는 17세기 전반기이다. 특히 16세기에 일반 사대부 묘에서 주로 조성이 되었다면, 17세기는 종실의 원(園)이나 묘(墓)에서도 대량으로 조성하였고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17세기 말에는 상석 좌우에 있지만 흠을 든 작은 문인도상으로 발전한다. 즉 불교도상은 서서히 배제되고 유교

4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1530년. 「田頭基墳：治喪百日而除略掘田頭以起墳間或有行三年喪者俗不用地理卜筮又不 用浮屠法」

식 도상으로 변환되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⁴³⁾ 육지와 마찬가지로 17세기는 본격적으로 제주지역 동자석이 나타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부터 시작되는 제주지역 동자석의 모습은 매우 현실적인 모습으로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1632년부터 1698년까지의 김만일이나 김대길, 김시용, 김번 무덤의 동자석은 더벅머리로 해석되는 민머리와 뺨은 머리, 쪽진 머리가 골고루 나타나며 복식에서는 간단하게 공수를 하거나 손 표현을 자세히 한 것이 특징이고 공통적으로 허리띠를 한 복식을 보여준다. 17세기 동자석은 민머리, 뺨은 머리, 쪽진 머리, 쪽댕기, 쌍상투가 골고루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제주는 1670년 봄 윤2월부터 가뭄이 계속되었고, 전염병이 번져 사람들이 죽어갔다. 더욱이 5월 말부터 매일 비가 내려 높고 낮은 데 없이 물에 잠겼다. 7월엔 폭풍우가 몰아쳤다.

(15) 제주 목사 노정(盧錠)이 치계하기를, “지금 섬이 온통 굶주리고 있는 백성이며, 열거나 굶주리거나 역으로 죽은 자가 이미 4백 37인에 이르렀습니다.”⁴⁴⁾

(16)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치계하였다. “떠돌며 빌어먹는 백성이 버리는 갓난아이를 이루 손꼽아 셀 수 없는가 하면 심지어는 옷자락을 당기며 따라가는 예닐곱 살 된 아이를 나무에 묶어 두고 가기도 하며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어도 슬퍼할 줄 모르고 묻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끊어져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⁴⁵⁾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대기근으로 매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므로 육지의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들의 문화전파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사실적인 동자석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17세기 제주지역 동자석 문화 시작의 배경은 17세기에 늘어난 유배인과 유배인의 유교문화 전파와도 관련이 있다. 17세기까지도 유교식 매장이 일반민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더라도 유교적인 상장례 문화가 시작되

43) 김은선, 앞의 글, p.48.

44) 『현종실록』 19권, 12년(1671) 2월 15일 정유조. 「濟州牧使盧錠馳啓曰 “即今學島 皆是飢民 凍餒癘疫死者 已至四百三十七人.”

45) 『현종실록』 19권, 12년(1671) 4월 3일 갑신조 「全羅監司吳始壽馳啓曰 “流丐之民 投棄赤子 指不勝屈 六七歲兒 挽裾而從者 至於縛樹而去 父母兄弟 死於目前 而不知哀戚 無意掩土. 人理滅絕 至於如此云”」.

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유교석상으로 분류되는 동자석이 시작되는 시기가 17세기부터 라고 본다면 소수 성씨 집단의 문화전파 외에도 다른 유교적 성향의 사회적인 배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유배인과 제주유학의 연관성을 다룬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배인 중 제주유학에 최초로 영향을 끼친 이익이 유배된 시기는 17세기 초반이고 17세기 중반부터 문과 입격자가 증가하게 되며 18세기에 이르러 열녀가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유배인을 통해 전파된 유학이 문하에게 먼저 전파되고 이를 기반으로 문과 입격자가 급증하게 되며, 이후 일반인에게까지 유학이 전파되어 18세기 열녀의 증가로 이어져 유학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유학이 전파되는 시기가 육지에 비해 1세기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은 섬이라는 고립성과 육지와 제주도를 연계해줄 정치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주유배인은 육지와 제주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에 유학이 전파되고 발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⁴⁶⁾

위 연구의 흐름을 볼 때 현존하는 제주지역 동자석이 17세기부터 시작되어 18세기에 정점을 이루다가 19세기에 쇠퇴하고 20세기에 소멸하는 과정도 유학의 전파와 유교적인 사회 배경이 작용하여 상장례문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예라고 하겠다. 또 유배인의 상장례와 상장례를 치르는 목사에 의한 문화전파의 영향을 알 수 있는 실마리라 하겠다.

다만, 김만일 가계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문인석, 동자석으로 보아 유배인, 목사 등의 외부 세력보다 토속 세력에 의한 제주지역만의 상장례와 묘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나 17세기의 상장례 기록에 김만일 가계의 상장례에 대한 기록이 없음이 의문으로 남는다.

제주지역에 동자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8세기에 조선의 진경문화는 숙종대에 시작되어 영조대에 이르러 조선의 고유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청나라와도 안정적인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오히려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북학사상이 출현하여 조선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묘제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확인된다. 의장석물 가운데 석인을 대신하여 석양이 문인석 위치에 놓이는 경우도 나타난다. 동자석은 18세기 숙종 후반기이후 능묘에서 더이상 조성하지 않는다.

46)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 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53~55.

이는 숙종27년(1701) 인현왕후 명릉부터 시행된 흉례제도의 검소화 시행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 시기의 제주는 유배인이 급증하는 시기이며, 중앙관료를 역임했던 인물들이 제주도로 유배되면서 유학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전파된 시기이다. 이 시기 유배인의 상장례에 대한 기록과 유배인의 장례를 조선의 유교식 절차대로 행하고 있는 목사의 기록으로 볼 때 유배인과 목사에 의한 제주도 상장례문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유배인이 사망하거나 사사되어 제주도에 장(葬)지낸 기록은 없어 직접적으로 석물을 세웠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유교식 상장례가 충분히 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산마감목관 경주김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유지되어 그들의 상장례를 포함한 문중의 묘제가 일반민에게 계속적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제주민이 산릉역사를 지원하는 등 유교적인 상장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시기였다.

18세기 제주지역 동자석의 특징은 육지에서 석인(石人)의 설치가 감소하며 동자석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기임에도 1세기 늦게 개체수적으로도 증가하며 다양한 지물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 감목관, 통정대부 등 직위가 높은 경우 외에도 학생(學生) 신분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세워진다. 이 시기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로 김진욱, 김진혁 등의 무덤 석물이 있다.

18세기의 제주지역 동자석에서 보이는 복식은 17세기와 다르지 않다. 상의를 중심으로 조사대상개체에서 허리띠의 묘사가 보이고, 그 다음은 소매와 옷고름이 보인다. 머리모양은 17세기의 것이 고른 머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18세기는 뿔은 머리가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실적인 모습이 여전히 17세기에 이어 나타나고 있지만 ‘동자석’이라는 명칭에 맞춰 정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형화의 모습은 지물에서도 나타나는데 19세기와 비교하면 개체 대부분에서 표현이 생략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점차 앞모습이 공수, 손가락을 묘사한 간략한 표현과 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정형화 된다.

18세기의 제주지역은 1711년부터 1715년까지 해마다 흉년이 들었다. 1711년에는 큰 비로 평지가 하천으로 변하였고, 1713년에는 폭풍우와 해일이 겹쳐 백성의 집들이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컸으며 마소도 4백 필이나 죽었다. 또 1714년 봄부

47) 김은선 앞의 글, p.49.

터 여름까지는 전염병으로 5천명이 죽었고 1716년 가을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런 가운데 1720년 숙종이 승하하였다. 대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곡식과 약재를 보낸 숙종을 잊지 못해 박계곤 등 35명이 스스로 명릉 능역에 참가하였다.⁴⁸⁾

제주민이 능역에 자원하여 참여한 것은 1720년부터 1786년 정도 까지며, 이를 통해 지배층의 묘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18세기의 경험이 상장례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제주 석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음이 그 단적인 예이다.

1720년과 1757년 등의 산릉역사에 참여한 인물 중에 이필완에 대해 살펴보면, 아버지 이세훈은 1696년 졸하였고, 어머니는 1757년 졸하였다. 이세훈 무덤의 석물을 보면, 아들이 산릉역사에 참여하였으나 동자석에서 육지 석물의 영향은 볼 수 없고 동자석은 공수 형태에 흠을 잡고 있으며 허리띠가 보이고 뿔은 머리 윤곽선을 보인다. 18세기 제주지역 동자석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육지 왕릉이나 사대부 묘의 석물과는 배치는 같으나, 다른 형태를 보인다. 지배층의 석물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도 그것이 직접적인 모습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조선시대 제주지역만의 여건에 맞게 정착되어간 것이다. 산릉역사 참여 민(民)에 대한 연구는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로 남긴다.

18세기는 3년 상을 모두 행하며 여전히 분묘를 만둠으로 유교식 장례문화가 정착되는 시기이다. 대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자 유교식 매장문화는 더 발달하게 되고, 발머리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이 된 것이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현재 남아있는 개체수로 추정해 보건데 모든 사람의 무덤에 동자석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 중심이 되어 동자석이 늘어났을 것이다. 뿔은 머리 형식의 동자석으로 정형화되는 모습은 많은 개체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자’에 초점을 맞춘, 일반화된 모습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또, 후대로 올수록 동자석은 ‘최소한의 석물’로서의 위치를 가진다.

(3) 조선후기 동자석의 특징(19세기)

19세기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석인을 세운 묘소 자체가 극히 드물어지면서 석

48)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세림, 2000, pp.172~175.

양이 석인을 대신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전체적으로 석물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다. 선 연구에서 서울·경기지역의 동자석은 18세기 중반까지 문인석형의 동자석으로 만들어지다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정된 일부의 초안산 분묘군 개체에서 19세기까지 동자석이 확인되나 그 자료는 정확한 편년 규정과 실체분석이 필요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9세기 제주지역 동자석의 복식은 허리띠와 소매, 옷고름이 거의 같이 나타난다. 조사 개체 중 가장 많은 개체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18세기에 이어 땀은 머리와 민머리의 표현이라든지 사실적인 복식의 표현이 이어지고 있고 개체 수도 늘어나고, 제주지역만의 양식이 정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 개체에서 점차 단순화되고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물의 표현에 있어서도 공수 표현이 가장 많고 손의 표현과 홀의 표현이 그 다음을 잇는다. 그리고 술병과 술잔, 주걱, 창, 등으로 해석되는 형태의 지물이 보인다.

19세기는 18세기에 이어 유교식 매장문화가 일반화되는 시기이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이 일반화를 뒷받침 한다. 18세기와 비교하여 기근이나 전염병이 덜한 사회적 상황을 볼 때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은 매장문화와 유교식 석물의 설치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19세기는 유교가 제주도에 정착하는 시기로 점차 무속적인 문화의 과정이 유교적 석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이다. 육지보다 늦게 동자석 문화가 시작되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동자석이 더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순조 32년(1832) 11월에 작성된 서귀포시 대륜동(옛 호근리)의 상여계의 입의를 보면 19세기 중반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은 조선중기 이후 상여계, 산담계 등이 조직되어 전래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조선중후기의 상장례는 마을의 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상여계 외에 산담계를 통해 묘역을 만드는데 공동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일부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던 상장례는 18, 19세기엔 일반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자석은 그 상장례문화의 반영이다.

2. 문중동자석 사례 분석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의 흐름을 조선시대에 제주지역의 상장례 문화를 주도한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동자석 문화의 기원을 짐작 할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시기별 동자석 문화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일부 성씨 중심의 장례 문화의 흐름이 동자석 문화를 이끌어 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김만일 가계를 중심으로 한 동자석 문화는 17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권력의 교체와 함께 등장한다. 김만일 가계와 일부 경주김씨가에서 동자석을 세운 무덤이 소수에 해당하지만 동자석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어 충분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7세기 이전의 제주지역의 상장례 문화와 묘제를 살펴보면 17세기의 동자석 문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추측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상장례 문화의 전파 이전에 문화전파의 주체가 바뀔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경주김씨문중은 남아있는 경주김씨문중의 동자석에서 제주지역 동자석 기원의 의미를 볼 수 있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경주김씨 문중의 일부 동자석을 분석에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던 자의 무덤이 다른 일반민의 묘역 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고씨와 광산김씨문중에서 일부 석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제주고씨는 토속 성씨이며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에서 위상이 상당히 컸던 세력이다. 제주고씨 문중의 석물 일부는 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남아 있다. 이 화강암 석물은 지배계층에 의한 화강암 석물 유입이 제주고씨문중 일부의 석물에 의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광산김씨 문중의 무덤은 지역적으로는 골고루 위치하여 있다. 광산김씨는 17세기 김진용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유학발전에 기여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유학의 발전에 광산김씨문중의 기여가 있는 것인데, 그들의 상장례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문중의 동자석들과 육지의 동자석들은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특이한 동자석의 양식은 재력과 권력을 나타내는 척도일수도 있지만 지역 석공에 의한 양식일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

을 아래에서 살펴보았다.⁴⁹⁾

먼저, 15~16세기의 제주고씨 문중 석물과 석물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1) 제주고씨문중

15~16세기의 ‘고득중’ 가계로 대표되는 제주고씨는 이 시기 상장례 기록에서 유교식 상장례를 행한 재경사족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최근 문과급제자를 통해 제주고씨, 광산김씨, 남평문씨, 경주김씨가 지역 내 유력 세력의 형성에 있어 혼인을 통한 인척관계를 형성하여 세력을 유지했다는 연구가 있다.⁵⁰⁾ 이 연구를 참고로 해보면 15세기에 제주고씨를 시작으로 전개된 상장례 문화는 유력세력들과 함께 제주지역에 전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력세력을 중심으로 인척관계가 형성되고, 학연에 의한 문과급제자가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이 상장례의 전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15세기에 제주고씨에 의한 사회적 주도가 문과급제에서 나타나는데, 고득중 일가의 상경으로 인해 후손이 단절되게 되어 16세기는 문과급제자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상장례 역시 뚜렷한 세력의 주도에 의한 보급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유배인에 의해 상장례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재경사족이 상경한 16세기의 빈 자리를 유배인이 채운 것이다.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광산김씨나 경주김씨에 의한 상장례의 주도가 이루어진다. 제주고씨문중은 직접적으로 동자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17세기 제주지역 동자석의 등장에 사회적 유력 세력의 교체가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주고씨문중의 석물은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고태필 무덤의 화강암 문인석 1쌍, 고한걸 무덤의 화강암 비석, 8세손 고이지 무덤의 문인석 1쌍 등으로 대표

49) 참고할만한 동자석은 한이성 묘역의 동자석이다. 17세기의 경기도의 한이성(1606~1634) 묘역의 동자석은 권력과 재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묘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동자석이 키가 100cm 내외인데 반하여 한이성 묘역의 동자석의 크기는 156cm의 비교적 큰 규모로 조성되었다. 한이성은 영의정을 지냈던 한준겸의 손자이자, 한성부좌윤을 지낸 한회일의 아들이다. 따라서 한이성 집안의 권력과 재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한준겸과 한회일의 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한이성의 묘역의 묘비에 의하면 그는 관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한이성은 벼슬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관직의 상징인 문인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동자석을 크게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50) 이규복,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된다. 대표적으로 고이지는 1584년 태안 현감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고이지 무덤의 화강암 석물은 16~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무덤에서도 화강암 석물이 나타나므로 제주고씨의 제주지역과의 단절이 상장례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주김씨문중

15~16세기를 지나 17세기에 이르면 제주지역에 동자석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문중동자석을 다루면서 경주김씨문중 일부의 석물이 주목되는 이유는 뚜렷한 사회적 직위가 나타나지 않는 제주에서 산마감목관이라는 객관적 직위를 세습하였기 때문이다. 종6품에 해당되지만 조선시대 제주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우세한 지위였으므로, 서울·경기지역의 문중 석상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남쪽 위주의 사례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던 자의 무덤은 다른 일반민의 묘역 조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판단 아래 경주김씨 김만일 가계를 중심으로 개체 분석 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17~18세기의 일부 개체가 중심이 되었다.

먼저, 아래에 열거한 동자석이 있는 묘는 남쪽에 많이 분포한다. 그러므로 경주김씨문중의 분석 대상 동자석의 특징을 논할 때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위에서 서술한 권력과 재력의 연관성, 그리고 남쪽에 집중된 무덤이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시 석공의 지역성을 같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전체 동자석이 남쪽에만 분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분석 대상이 경주김씨문중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대상은 <표 6>과 같다.

경주김씨문중의 무덤 중에서 동자석이 남아있는 무덤 일부 만을 분석하였다. 17세기는 5쌍, 18세기는 3쌍, 19세기는 1쌍이다. 9개의 문중 무덤 중에서 6개의 피장자가 감목관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 외는 통정대부, 통사랑, 유향별감으로 파악된다. 각 도에 있는 목장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던 종6품의 무관직인 감목관직 이외에 종3품 무관직인 통정대부가 감목관보다 높은 직위인데 9개의 동자석 주인 중에서 7개가 높은 직위의 관직을 역임한 피장자이다. 지역으로는 서귀포시 남원읍이 6개, 토평동 1개, 서흥동 1개이다.

<표 6> 제주지역 경주김씨문중 동자석⁵²⁾

	사망 연대	구분	묘주	직위	지역	동자석 형태		
						머리모양	앞 모습	복식
1	1632	17C	김만일 ⁵¹⁾	오위도총부도총관	남원읍	민머리	공수	허리띠
2	1658	17C	김대진	감목관	조천읍	땅은 머리 윤곽	손	포의 여밈
3	1668	17C	김대길	감목관	서홍동	민머리	홀	허리띠
4	1694	17C	김시용	통사랑	남원읍	쪽댕기 땅은 머리 윤곽	술잔	소매
5	1698	17C	김 번	통정대부	남원읍	쪽진 머리	손	허리띠
6	1700	18C	김진옥	감목관	남원읍	쪽진 머리	손	-
7	1712	18C	김진혁	감목관	토평동	겹 쪽댕기	손 / 홀	허리띠
8	1762	18C	김경하	유향별감	남원읍	땅은 머리 댕기	손/창형	허리띠/ 옷고름
9	1843	19C	김종원	감목관	남원읍	땅은 머리 댕기	주걱형	소매

(자료 : 『죽은자 또는 산자의 공간-무덤』, 『제주역사연구』, 『제주의 무덤』 참고)

동자석의 형태에 대해 보면, 머리모양은 민머리 4건, 쪽진 머리에 댕기를 드리운 쪽댕기 머리가 3건, 쪽진 머리 4건, 땅은 머리 윤곽선만 표현한 것이 3건, 땅은 머리에 댕기를 드리운 것이 4건이다. 쪽진 머리류가 7건, 땅은 머리 류가 7건인 것이다. 앞모습을 보면, 손을 소매 속으로 집어넣은 것과 같은 공수의 표현이 1건, 손가락을 자세하게 표현하여 배에 붙인 형태가 5건, 홀 1건, 술잔, 창, 주걱 형태와 비슷한 지물이 표현되어 있다. 복식에서 허리띠는 5건, 포 1건, 소매 2건, 옷고름 1건이다.

(1) 경주김씨 입도 7세 김만일(金萬鎰)

경주김씨 입도7세 김만일(金萬鎰)은 제주지역 경주김씨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김만일은 선조 25년(1592)과 선조 33년(1600), 광해군 12년(1620) 등에 조정에 말을 바쳐 관직을 제수 받았다. 광해군 14년(1622)에 큰 아들 김대명에게 네 필의 말을 보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대명은 전라도 보성 군수를 역임했다.

51) 김만일의 동자석은 2005년 도난 되어 김유정의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52)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창석, 『제주역사연구』, 세림, 2007.

국립민속박물관,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무덤(조선시대 묘제 자료집)』,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제주의 민속문화-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7.

염경화, 『제주도 묘제 및 장례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Ⅲ, 국립민속박물관, 2007.

김만일 묘의 동자석은 앞면은 손가락을 자세히 표현하여 양손을 붙여 배 위에 모았으며, 모아진 손 위로 구멍이 뚫려있다. 좌우 동자석이 같은 형태이며 뒷면의 머리는 민머리이며 허리띠를 하였다. 이 동자석은 문인석과 얼굴, 손의 표현이 같다.⁵³⁾

이 동자석은 머리 형태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가벼운 복식만을 표현한 것이 특징인데, 같은 모양의 문인석이 있음에도 동자석을 또 만든 것은 동자석이 가지는 기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김만일의 동자석과 문인석은 제주도 묘제에서 동자석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석물은 다른 석물들과의 비교 대상이 되는데, 현마공신으로서의 김만일 가계의 경제적 위치가 대단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후손에 의해 화강암 석물이 아닌 제주지역의 상장례문화를 반영한 문인석, 동자석을 세웠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력에 의한 주체성을 가진 상장례문화의 주도를 엿볼 수 있다.

석물을 세운 후손들은 대대로 산마감목관 직을 습작하면서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산마감목관을 행하는 200여년의 기간 동안 최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물이 후대에 세워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김만일 묘의 문인석과 동자석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김만일의 경제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17) 전교하기를, “김만일(金萬鎰)이 서울에 올라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처치하지 않는가. 속히 처치하라는 일을 해조에게 말하라.”하였다. -김만일은 제주(濟州)의 부유한 백성이다. 말을 길러 만 필(匹)이나 되었으며, 나라 안의 좋은 말은 모두 그가 기른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말 5백여 필을 와서 바쳤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⁵⁴⁾

53) 김만일 묘의 문인석과 동자석에 대해서는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봉분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문인석은 산담에 거의 맞붙여 세워져 있다. 지표에서 세워진 높이는 147cm이다. 머리에는 복두와 같은 모자를 쓰고 있으며, 양 끝을 치켜 뜬 두 눈은 이중으로 돌을 세김하여 부리부리하게 표현하였고, 양 귀와 코는 큼직하게 돌출시켰다. 입술은 결의에 찬 듯 역삼각형으로 앙다물고 있으며, 무성한 수염은 가슴까지 흘러내리게 조각되었으며, 두 손은 아랫배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다. 특이한 점은 등 뒤쪽으로부터 앞쪽 겨드랑이 밑까지 띠와 같은 의복과 슬이 흘러내리게 표현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문인석은 지난 2004년 도굴당한 동자석 사진과 비교하면 눈, 귀, 코, 입술의 표현형태가 동일하다. 문인석과 동자석을 한 묘역 내에 앞뒤로 조성한 점, 이 석상들의 제작연대가 확실한 점 등은 문인석과 동자석을 연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박용범, 「IV. 김만일 분묘와 생가터 및 감터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조사」, 『제주마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p.37.

54) 『광해군일기』 권155 광해군 12년(1620) 8월 경신조. 「金萬鎰上來已久 何至今不爲處置乎 速爲處置(事, 言于該曹) - 金萬鎰, 濟州富民也 (以)畜馬(致產千)萬匹, (而國中良馬, 皆其所畜).- 至是, 來獻(馬)五百(餘)匹, 故有是教。」

이 기록에서처럼 김만일의 경제력은 『조선왕조실록』등에 실릴 만큼 부유했음을 알 수 있다. 김만일 사후에도 문중의 경제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에서 김만일 가계의 경제력을 살펴볼 수 있는 호구관계 고문서를 보면 노비 수를 통해 경제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김만일가의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는 1777년의 25명인데, 노 8명, 비 17명으로 성별 비율은 비가 많다. 뿐만 아니라 1756년에 노 7명, 비 15명이고, 1780년에도 노 7명 비 10명, 1783년에는 노 7명 비 12명, 1795년에는 노 4명 비 11명이며, 1804년에는 노 2명 비 9명 등으로 1756년부터 1804년까지 김만일 가계는 많은 수의 노비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비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17세기에 이어 18세기까지도 그들의 경제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노비를 소유한 집안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로도 이 가문의 경제력은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득중 가계를 중심으로 한 15세기 상장례 문화에서 16세기의 유배인, 목사의 상장례 문화 전파의 시기를 지나 17세기에 새로운 석물을 만들어 낸 것은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권력을 표현한 것이다.

(2) 경주김씨 입도 8세

김대길은 김만일의 셋째아들로, 선대와 본인의 헌마훈공으로 초대 감목관에 올랐으며(1657년), 김공은 1668년 사망 후, 세 번째로 이곳에 이장됐다.

효종 9년(1658) 김대길과 손자 김여가 말 208필을 중앙정부에 바쳤다. 왕은 제주 목사 이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마장을 조성해 말을 기르게 하고 김대길을 산마감목관에 임명하고 후손으로 하여금 감목관직을 세습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0여년의 기간 동안 경주김씨문중에서 산마감목관직이 습작된다.

동자석을 보면, 좌우동자석은 민머리이고 손가락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홀과 비슷한 지물을 들었다. 좌측동자석은 허리띠가 뒷면에 보이지만 우측동자석은 허리띠가 뒷면에 보이지 않고 대신 목 부분에 옷깃이 표현되었다. 그 외 석물은 비석, 망주석, 문인석이 있다. 비석은 비좌, 옥개석이 없고 망주석은 받침돌이 있다.

55)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고씨 일가의 호구자료 분석」, 『탐라문화』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문인석은 동자석과는 다른 얼굴생김새를 보이고 있는데 김만일 묘의 문인석과 흡사하다. 관모를 쓰고 있고 수염이 달렸으며, 손가락 표현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홀을 잡고 있다. 뒷면은 허리띠와 옷깃이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문인석의 형태로 보아 같은 석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문인석과 동자석의 형태가 다르게 만들어진 것은 동자석으로서의 의미가 더 부각된 것이라 판단되는 바이다. 역시 화장암이 아닌 석인상이다.

김만일의 둘째 아들인 김대진도 감목관을 지냈다. 김대진 묘의 동자석은 2011년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이 동자석은 고봉례묘 추정지 발견 동자석과 경기도의 '박물관얼굴' 박물관의 동자석과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원통형이며 의복의 표현 방식이 두 석상과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조면암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외형이 비슷하다는 연구가⁵⁶⁾ 있다. 그러나 사진으로 그 모습을 살펴보면 앞 머리 부분의 가르마, 손가락, 입술과 귀 모양의 조각이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조각되었다. 피장자의 사망, 장례 연대를 기준으로 17세기의 석물들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감목관 집안의 서귀포 지역의 석물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도 차이가 있어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 판단되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제주돌문화공원에 재현되어있는 훈장묘의 동자석이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시립공동묘지의 훈장을 지낸 1900년대 안용식 공의 묘에 있는 동자석은 땡기머리 아이의 앞모습을 보여준다. 5 : 5로 가르마를 타고 눈썹과 입술, 눈, 코, 소매의 표현과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 그 무릎 위에 얹은 손까지 모두 실제의 아이와 같은 모습이며, 가슴에 옷고름까지 실제의 학생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김대진 묘의 동자석이 더 실물에 가까우니 두 개체를 비교한다면 김대진 묘의 동자석도 20세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김번(金藩)⁵⁷⁾은 경주김씨 입도조 김검룡의 8세손으로 통정대부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며, 직계손은 아니다. 공이 먼저 1698년 사망하여 이듬해 1월 현 위치에 안장됐고, 이후 숙부인 양씨가 1706년 2월에 사망하자 공 옆에 부장됐다. 『탐라

56) 이창훈, 『제주동자석』Ⅱ, 제주동자석연구소, 2007, pp.16~19.

57) 국립민속박물관의 『죽은자 산자의 공간-무덤』자료에는 '김번'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탐라국시대사』에는 '김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순력도』의 대정배전 등에서 보이는 시녀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석상이다. 피장자가 산마감목관을 지냈다는 기록은 없고, 김만일 종가 소장 교지를 보면⁵⁸⁾ 1652년 종4품 무관직으로 시작하여 1665년 종3품 무관직인 수군첨절제사로 임명됨을 알 수 있다. 교지는 1675년까지 볼 수 있는데, 1675년의 교지에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김번의 처를 남편의 관직에 따라 숙부인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김번은 산마감목관을 지낸 인물들 일부 묘와 비슷하게 동자석이 쪽진 머리 형태의 석상으로 표현되었다.

좌우동자석의 머리 형태는 정수리 중앙이 아닌 어깨 아래로 내린 쪽진 머리이며, 허리띠를 한 모습이 보인다. 손가락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맞잡은 형태를 하고 있다. 허리띠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포를 입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문인석은 관모를 쓰고 앞뒤로 허리띠가 선명하며 소매도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홀을 잡고 있다. 김번 묘의 문인석과 동자석은 17세기말, 18세기 초에 세워진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초기 석인상이다. 김만일 묘의 석인상처럼 똑같은 얼굴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문인석과 동자석의 모습이 확실히 다르다. 서서히 동자석의 역할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석물로는 망주석과 문인석, 비석이 있다. 망주석은 받침이 있고, 비석은 귀부가 있다.

(3) 기타

김진옥은 경주김씨 입도조 김검룡의 10세손으로, 선대의 훈공으로 감목관을 역임하였다. 김진옥은 1700년 숙부인 함덕 강씨도 같은 해 10월에 사망하여 따로 장사지냈다가, 1703년 5월 29일 합장됐다.⁵⁹⁾

좌우동자석의 머리 형태는 쪽진 머리 형태이지만 다음의 김진혁 동자석에 비해 간략하게 표현한 모습이다. 들고 있는 지물은 없고 손가락을 자세하게 표현한 공수(拱手)의 형태다. 그 외의 석물은 비석뿐이다. 김진옥은 직계손은 아니다.

김진혁은 김만일의 4세손으로, 역시 감목관을 역임하였다. 1712년 4월 안장됐다. 좌우 동자석의 머리 형태는 곁으로 쪽진 머리에 아래 두 줄기 땃기를 내린

58) 고창석, 「김만일 종가 소장 고문서」, 『담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p.430~432.

59) 경주김씨문중의 피장자 신분은 국립민속박물관 『죽은자 산자의 공간-무덤』 자료와 김만일종가 소장 고문서 등을 바탕으로 신분 확인을 하였다.

형태이고, 양 쪽 손가락을 자세하게 표현하였으며 손가락을 맞잡은 형태에 두 가락의 홈 같은 막대기를 잡고 있다. 뒷면 허리에 허리띠가 선명하다.

나머지 석물들도 살펴보면 문인석과 망주석, 비석이 있다. 문인석은 관모를 쓰고 동자석과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하였다. 얼굴모양은 동자석과 비슷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석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망주석이 있다. 석물들 중에서 동자석 이외에 눈여겨 볼 것은 비석이다. 귀부가 있고 비신은 옥개석이 있는데 특이하다. 연엽형개석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위의 김번/탐라양씨 묘와 무덤 석물 구성이 비슷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는 17세기 중후반, 18세기 초의 석물들이다.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경주김씨 전체의 개체가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을 유추할 수 있는 석물이기에 의미가 있다. 특히 비교할만한 대상은 김번, 김진옥이다. 김번, 김진옥은 직계손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김번의 무덤 석물은 형식을 갖추어 세워졌고, 김진옥은 동자석만 남아있다.

직계손인 김진혁 무덤과 직계가 아닌 김번의 무덤은 문인석, 동자석과 망주석 등 석물이 갖추어져 후손의 경제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석물의 차이를 보이는 김진옥 무덤의 동자석은 또한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감목관을 역임하여도 문인석, 망주석이 아닌 동자석만 세워진 것은 동자석이 최소한의 석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3) 광산김씨문중 동자석

광산김씨의 동자석은 18, 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광산김씨문중의 동자석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위치하여 있으며, 머리 형태는 뿔은 머리가 주를 이루고 복식은 소매, 허리띠, 옷고름 등이 나타난다. 광산김씨문중 동자석은 일반적인 제주지역 동자석이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권력과 재력에 의한 석물의 구성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광산김씨의 석물과 동자석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광산김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동자석의 형태가 17~18세기에 걸쳐 경주김씨문중에 나타난다거나 하는 결론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쪽진 머리카 쪽진 머리에 댕기를 드리우는 동자석은 경주김씨

이외 다른 무덤에서도 보이지만 탐라순력도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 권력과 재력의 영향을 추측하여 보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머리 표현에서 17세기에 민머리, 땡은 머리, 쪽댕기, 쪽진 머리 등의 표현이 모두 나타나는데 1694년부터 1712년까지 쪽진 머리류의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향좌수나 가선대부 등 특별한 직위를 가지지 않은 피장자의 무덤에서도 쪽진 머리에 두 줄기 땡기를 드리운 동자석을 볼 수 있으므로 직위에 따라서 보다는 경제력이 석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해보는 바이다.

경주김씨문중의 동자석은 『탐라순력도』의 시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정한 흐름을 가지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몇 개체 무덤의 석물의 구성품에서 많은 개체수와 특이한 석물이 보이므로 경제력에 더 비중을 둘 수 있겠다.

사실적인 복식에 참고가 되는 것은 시자석인데 제주지역 동자석과 비교 대상인 시자석인의 복식을 보면 15~16세기 전반에 착용된 실제의 포가 묘사되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실적 묘사의 의미는 실제로 시중드는 자를 거느리고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의 표현이라 하겠다.

제주도 경주김씨문중의 동자석들과 육지의 시자석의 공통점은 실제의 복식이 반영되는 시중을 드는 역할을 강조한 석인이 보인다는 점이다. 경주김씨 문중에서는 모든 동자석에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4개의 개체에서 특징이 보이며, 시자석처럼 사실적인 복식과 형태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제주광산김씨 묘에서 통정대부를 지낸 김공의 묘에서도 쪽진 머리에 두 가닥 땡기를 드리우고 허리띠를 한 것 같은 사실적인 모습의 동자석이 보이나 이도 김번(金璠)의 예처럼 교지 등을 통해 직위를 확인하고 이것이 실직인지 허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IV. 제주지역 동자석 형태와 묘제

조선시대 사대부묘의 시자석과 동자석은 복식과 머리 모양이 다르다. 시자석은 처음부터 ‘동자’의 의미가 아니라 ‘시자(侍子)’의 의미를 가진 석상으로 해석되는데 조선 후기의 복식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동자석에서는 머리모양 대부분 쌍상투로 표현되어 조선후기 아이들의 쌍상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복식에서 한대(漢代)의 특징이 나타나므로 머리모양도 현실에 바탕을 두기보다 불교동자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16세기 전반의 최명창 묘의 동자석과 문수동자상 목조도연봉동자상은 형태가 똑같다.

조선시대 동자에 대해서 『조선통신사행도』와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동자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시기의 동자가 가지는 의미는 『조선통신사행도』⁶⁰⁾와 『조선왕조실록』의 ‘중금(中禁)’에 대한 기록이 참고 된다. 『조선통신사행도』에서 이 그림에 나타난 소동(小童)이 참고 되는데, 『탐라순력도』에서 시중을 들던 관비(官婢)인 시녀의 역할을 『조선통신사행도』의 소동(小童)과 비교해보고, 제주지역 동자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제주지역 동자석의 형태를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동자에 대해서는 『조선통신사행도』의 소동(小童)이 『탐라순력도』의 인물들과도 객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시중을 드는 소동의 모습이 사대부 동자석에는 머리모양을 제외하고 복식은 반영이 되지 않으나, 제주지역 동자석에는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시중을 드는 관비(官婢)인 시녀나 동자의 머리모양, 복식이 반영된 것이 특이하다.

1636년부터 1811년까지의 『조선통신사행도』 15점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수령의 신변에서 시중을 들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관노를 통인(通引)이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소동(小童)’이라 칭하고 있다. 이 소동이 관노(官奴)라는데 의의를 두고, 소동의 복식과 머리모양을 보면, 시중을 드는 관노(官奴)인 ‘소동’의 모습은

60)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주영·권영숙, 「조선통신사행도를 통해 본 소동(小童)의 역할과 복식」, 한국복식학회, 2007.

뺨은 머리와 소창의, 꿰자로 대표되는 복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통신사행도』에서의 관노와 달리 16~17세기의 서울·경기 지역으로 대표되는 아이모양의 동자석 복식, 머리 모양은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최명창 묘의 동자석인과 문수동자상 목조도연봉동자상처럼 불교동자상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자석의 기원을 조선 중후기에 관원들이 거느리던 ‘동자’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금(中禁)’에 대한 기록이 있다.

(18)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선왕조(先王朝)에서 15세 이하의 동자(童子)를 뽑아 이름을 중금(中禁)이라고 하여 엄(嚴)을 전하게 하였다가 세조조(世祖朝)에 이르러 없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는 진실로 조의(朝儀)에 관한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세우소서.”하니, 임금이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없앤 것이라 하여 윤희하지 아니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승정원에서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에 중금(中禁)을 회복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셨는데, 신 등이 다시 생각하건대, 무릇 어가(御駕)가 움직일 적에 엄(嚴)의 절차에 있어서 제장(諸將)이 서립(序立)한 다음에 금루 사령(禁漏使令)이 그 사이를 뚫고 분주히 다니면서 엄을 전하니, 조의(朝儀)가 없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다시 세우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⁶¹⁾

(19) 승지(承旨)들과 내관(內官) 김결(金潔)·김처선(金處善)에게 명하여 중금(中禁) 40인을 골라서 4번(番)으로 나누고 그 복식(服飾)은 자적관(紫的冠) · 도금토환(鍍金吐環) · 오색사문직대(五色絲文織帶) · 은이환(銀耳環)에 걸옷은 자적 단령(紫的團領)이고 속옷은 여름에는 일편초록사겹비개(一偏草綠紗袂飛介)를, 겨울에는 필단(匹段)을 쓰게 하였다. 그 임무는, 조하(朝賀) · 조참(朝參) 및 동가(動駕)때에 엄(嚴)을 전하는 것과 방방(放榜)때에 전창(傳唱)을 하고, 거동때에는, 문 안에서는 별감(別監) 앞에서 수가(隨駕)하고, 문 밖에서나 모화관(慕華館)에서는 수가하되 열병(閱兵) 때에는 아니한다...(중략) 무릇 예행(禮行)에는 중금(中禁)이 대가 앞에서 시위(侍衛)하고 대가가 교량(橋梁)이나 길이 좁은 곳에 이르면 중금이 외치기를, ‘시신(侍臣)은 달려 나오라.’고

61) 『성종실록』 성종 15년(1484) 10월 17일 신미조. 「先是 承政院啓: “先王朝擇十五歲以下童子 名之曰: ‘中禁以傳嚴’ 至世祖朝革之 以今觀之 此實關朝儀 請復立” 上以祖宗已革 不許 至是承政院更啓曰: “臣等前日請復中禁 不許 臣等更思之 凡動駕嚴節次 當諸將序立時 禁漏使令 奔突其間 以傳嚴 無朝儀 請須復立” 從之.

한다.⁶²⁾

(20) 각 사의 관원이 연소한 동자를 많이 거느리는 일 및 음식이 사치한 일은 엄금해야 한다.⁶³⁾

(18), (19), (20)의 기록은 중금에 대한 기록이다. 중금은 연소한 동자들로 하여금 궁과 관에서 재직케 하면서 영을 전달하거나 심부름을 하게 하는 직책을 말한다. 액정서 별감 밑에 둔 심부름꾼으로서 왕을 시종하거나 명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으며, 15세 이하의 동자를 차출하였다. (18)의 기록에 중금의 나이 제한과 부활의 이유가 상세히 나와 있다. 중금의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조선조에 들어 폐지되었다가 이 시기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19)의 자료는 중금의 복장과 임무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중금의 복장은 겉옷은 자적 단령이며, 임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데 엄을 전하는 일이 가장 주된 임무이며, 주로 시위(侍衛)임을 알 수 있다. (20)의 자료에서는 중금의 제도에 영향을 받아 관료들이 사적으로 동자를 거느렸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말에 궁에서 다시 시작된 중금의 제도가 16세기에 관원들의 사가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시자석인과 동자석의 유행시기와 비슷하다. 이 기록처럼 시동으로서 연소한 동자를 거느리는 것과, 『탐라순력도』에서 보이는 시비(侍婢)처럼 시동, 시비를 거느리던 풍습이 죽은 자를 시종하라는 ‘시중’이라는 역할이 더 강화된 석물로 동자석을 탄생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시대 동자석이 한대(韓代)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기원이 조선시대 실제 인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또한 제주지역의 조선시대 실제 인물의 모습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려준다.

62) 『성종실록』 성종 15년(1484) 11월 23일. 「命承旨等及內官金潔 金處善 擇中禁四十人 分四番. 其服飾 則紫的冠 鍍金吐環 五色絲文織帶 銀耳環. 表衣 紫的團領 裏衣 夏則一偏草綠紗袂飛介 冬則用匹段. 其所任 則朝賀 朝參及動駕時傳嚴 放榜時傳唱 行幸時 門內別監前隨駕 如門 慕華館 則隨駕 閱兵時則否 ...凡禮行中禁駕前侍衛 駕至橋梁 路隘 則中禁呼曰 “侍臣馳出” 放榜時 立殿庭東 西 通禮院員先唱姓名 司謁書小紙傳付中禁. 中禁細聲唱曰 某之子某」.

63)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 5월 21일. 「各司官員, 多率年少童子事及飲食奢侈事, 宜嚴禁」.

1. 형태의 의미

조선후기 제주지역 동자석의 사실적 특징으로 문인석보다 동자석을 통해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머리 형태와 복식, 지물을 통해 동자석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제주사회를 역으로 유추해 보겠다.

1) 머리 형태

제주지역 동자석 머리 형태는 땡은 머리, 쪽진 머리, 민머리, 쌍상투 등으로 구분한다. 제주지역은 땡은 머리 형태의 동자석이 가장 많은 개체수가 발견된다. 땡은 머리 형태의 동자석은 크게 땡은 머리와 땡은 머리 아래 땡기를 드리우는 방법 두 가지로 표현된다. 땡은 머리 형태는 여자아이, 남자아이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시중을 드는 것은 혼인하지 않은 남자아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탐라순력도』에서도 관노(官奴)인 악공들 중에서 땡기머리와 상투머리의 피리를 부는 악공이 있는데 이는 나이 어린,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가 땡기 머리를 한 것이다. 고원방고, 산방배작, 대정양노에서 땡은 머리의 한 총각이 피리를 불고 있다. 동자석에서의 땡은 머리 형태는 혼인하지 않은 나이 어린 남자와 여자를 표현한 것이다.

쪽진 머리 형태의 동자석은 단순히 등글게 머리를 말아 어깨 아래로 내린 형태뿐만 아니라 쪽 아래 쪽 땡기까지 다는 모습도 확인이 되며, 드물게 곁으로 쪽진 모습을 표현한 동자석도 있다. 쪽진 머리 동자석의 신분에 대해서는 어른이며, 시녀를 뜻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초기의 머리 형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쪽진 머리 형태의 동자석이 발견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그 개수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땡은 머리 형식으로 흐른다. 이는 화북동 탐라성주 묘 발견 동자석과 같이 쪽진 머리 형태를 가진 동자석 개체수가 거의 없다는 것과 상통한다.

제주도 사료에서 사람의 머리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보면, 제주지역 동자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21) 이색적인 머리채 땡아 쪽지고 문에서 맞는 여인⁶⁴⁾
- (22) 남자와 여자는 길가에서 우뚝 서서 바라보며 남정들은 모두 가죽 옷에 가죽 모자를 썼으며, 여자들은 비록 7,8세 아이라도 모두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땡아 묶어서 쪽을 지었다.⁶⁵⁾
- (23) 토산물은 말갈기·나전·양태·모자·땡은 머리(수채首髻, 사람의 두발이 심히 긴 까닭이다)가 있다. ⁶⁶⁾

(21), (22)의 17세기 이증의 『남사일록』에서 머리 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여자의 탐스러운 쪽진 머리는 보통 운환(雲鬢)이라고 하는데, 『남사일록』에 쪽진 머리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21), (22)의 기록에 의하면 1679년의 제주 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은 쪽진 머리를 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성별에 있어 남자가 아니라 여자만을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복식과 머리모양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주지역 동자석의 머리모양은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3)의 자료는 『남환박물』 지산(誌産) 조(條)이다. 사람의 두발이 길어서 땡은 머리인 술이 적은 머리에 덧대는 가발로 해석되는 수채(首髻)가 토산물로 올라갈 정도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탐라순력도』에서 밑으로 내린 쪽진 머리와 연녹색의 포를 입고 허리띠를 한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모습은 현재 비석에서 절대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17세기 동자석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다.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화북동 탐라성주묘 발견 석상, 청주한씨 동자석과도 비슷한 모습이다.⁶⁷⁾




64) 이증, 『남사일록』, 숙종 5년(1679) 12월 초7일 무진조, 「殊鬢異辮迎門女」.

65) 이증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숙종 5년(1679) 12월 초8일 기사조, p.41.

66) 이형상, 『남환박물』, 「産有 鬢物 螺鈿 涼臺 帽子 首髻」.

67) <그림 2>의 탐라순력도 내 머리모양 상세 부분이 참고 된다. 「대정배진」의 쪽진 머리를 묘사한 부분이다.

<그림 1> 제주지역 동자석의 초기 머리 형태⁶⁸⁾

			
쪽진 머리	쪽진 머리	쪽댕기-두 가닥	쪽댕기-한 가닥
화북동 탐라성주 묘 -고봉례(高鳳禮) 묘 추정지 발견(미상)	청주한공 묘 (通政大夫淸州韓公) (1617~1692)	김번(金礪) 묘 (1629~1698)	김진욱(金振煜) 묘 (1632~1700)

(자료 :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외, 사진 참고)

17, 18세기에 쪽머리와 쪽댕기를 새긴 동자석은 『탐라순력도』, 『남사일록』에서 확인되듯이 ‘시중(侍仲)’이라는 의미에 중심을 둔, 시비를 포함한 여인과 여자아이를 조각한 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민머리의 동자석은 뿔은 머리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머리 형태이다. 민머리는 뚜렷한 표현이 없으나 어린아이의 작은 머리를 표현한 듯한 개체를 민머리라 정의하였다. 민머리는 조선시대 그림에 등장하는 시동의 더벅머리를 표현하거나, 아이의 작은 머리를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쌍상투의 제주지역 동자석은 서울·경기지역 동자석의 모방으로 여겨진다. 쌍상투 역시 조선시대 일부 사대부층에서 행해지던 머리 모양이다.

(21), (22), (23)의 사료를 바탕으로 보면 17~18세기의 제주는 긴 두발 때문에 여성의 머리 형태가 뿔은 머리, 쪽진 머리가 일반적인 형태였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제주지역 동자석은 실제 인물들의 머리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문화전파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 지역으로 대표되는 동자석의 머리 형태인 쌍상투가 아닌 뿔은 머리 형태로의 귀결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만의 문화 함축적인 결과이다.

68)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2003.

<그림2> 『탐라순력도』 내 인물들의 머리 형태

	구 분			
	쪽진 머리	맹기 머리	상투머리	없은 머리
출 처	대정배전	제주사회	병담범주	제주양노
내 용				
그 립				
신 분	관노 - 시비	관노 - 악공	일반인 남자/뱃사공	일반인 여자/기녀

(출처 : 『탐라순력도』 영인본)

2) 복식

제주지역 동자석은 육지 시자석, 동자석의 복식에 비해 간략한 표현이 보인다.

<그림 3>과 같이 앞면에는 허리띠와 아래로 떨어진 두 줄의 옷고름이 보이며, 뒷면은 허리띠를 한 모습이 대표적이다. 육지 동자석에서 ‘천의’가 반드시 표현되는 요소라면 제주지역 동자석에서는 ‘포(袍)’를 입은 것 같은 간략한 표현이 대부분 나타난다. 그 외에 김형우(金亨雨) 묘의 동자석처럼 소매를 표현한 것이 있다.

서울·경기지역 동자석에 나타난 복식은 포, 허리띠, 피백과 운견, 포두 등으로 이루어진다. 포(袍)의 길이는 발목 정도이다. 포 위의 어깨에는 얇은 옷감으로 된 천의를 목에서부터 둘러서 겨드랑이 쪽으로 넘겨서 바람에 휘날리는 모양을 표현하였다.⁶⁹⁾

동자석보다 먼저 나타나는 시자석의 복식은 두 가지 형태의 복식으로 나뉘는데, 평상복을 입은 상과, 동자상과 유사한 복식을 입은 상으로 피백을 하고 손

69) 이은주, 「석인상에 나타난 복식 연구」, 『경기묘제 석조미술』下-조선후기 해설판, 경기도 박물관, 2008.

에는 지물을 쥐고 있는 상이다. 평상복을 입은 상은 조선전기의 인물들의 묘역에 세워져있고 동자상과 유사한 복식의 상은 조선후기의 인물들의 묘역에 세워져 있다. 석인상들이 반드시 정해진 관복만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시중을 드는 역할을 더욱 강조하여 평상복을 입은 사실적인 시자석을 동자석보다 먼저 세웠듯이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사실적인 복식이 주를 이룬 동자석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제주지역 동자석 복식의 앞, 뒷면

			
앞면 허리띠	뒷면 허리띠	앞면 허리띠, 옷고름	뒷면 허리띠
김명환(金鳴煥) 묘 1738~1810		김형우(金亨雨) 묘 18세기 중반으로 추정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죽은 자 또는 산자의 공간 -무덤』 참고)

불교동자상의 기본 복식은 소매가 넓은 긴 도포에 긴 치마를 입은 것이다. 상의 인도포형 옷은 조선말기로그 되면 길이가 짧아지고 실제 조선시대 남자아이의 옷차림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동자석, 시자석, 불교동자상과 비교해보면 포와 허리띠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조선시대 제주지역 사람들의 복식에 주요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가죽 감티, 초신, 갈중의 옷 / 자갈밭과 초가지붕 영성한 사립문.⁷⁰⁾

(25) 정의성 소녀들은 피약벌에도 치마도 아니고 적삼도 아닌 옷을 입었다. 치마는 성안의 여자들도 입지 않고 다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⁷¹⁾

70) 이증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숙중 5년 12월 초8일 기사조, p.212.

(24), (25)의 기록을 보면 16~18세기의 의생활은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것처럼 풍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의 『탐라순력도』에서 표현된 복식들과는 차이가 난다. 『탐라순력도』의 복식을 살펴보면 여성의 복식은 관비(官婢)인 시녀, 기녀, 일반여성이고 남성은 관노(官奴) 악공, 뱃사공, 일반인이 참고 된다. 시녀는 대부분 길이가 긴 옷, 포(袍)를 입었다. 옷 색은 한 가지 색(연녹색)으로 처리하고 허리띠를 매었다. 말을 탈 때에는 병거지를 쓰고 전복(戰服)을 입고 있다. 기녀는 대부분 화려하게 꾸미고, 옷은 색이 있는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다. 녹의홍상이나 황의정상 외에 포를 입고 있다. 일반여성의 노인은 어른의 옷은 치마에 저고리 차림이며, 색은 모두 거의 흰색으로 처리되었다.⁷²⁾ 관의 시비는 일반의 시비보다도 복식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 사료의 복식을 참고해보면 사실적인 복식의 표현은 유교적인 석물이지만 유교적인 속성을 나타낸 다기 보다, 실제 조선시대 제주지역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불교동자상에서도 조선 말기에 실제의 복식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인데, 실제 복식이 반영되는 것을 제주지역 동자석에서는 17세기부터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에서 보이는 복식의 일부는 17~18세기의 제주의 복식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제주의 복식 중에서도 평민의 일상복이라기보다 격식을 갖춘 옷으로 판단이 되며, 상복과는 관련이 없는 복식이라 할 수 있겠다.

3) 지물

지물은 동자석의 가슴 부위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긴 것을 말한다. 비교대상이 되는 불교동자상과 육지 동자석에서 지물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제주지역 동자석은 들고 있는 물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손 표현에서는 유사성을 보인다. 동자석의 앞면 표현은 지물이 있는 것과 지물 없이 공수 또는 손 표현이 있는 것으로 나뉜다.

71) 조정철, 『정헌영해처감록』, 제주문화원, 2006.

72) 고부자, 앞의 글, pp.325~326.





시자석과 동자석을 살펴보면, 동자석은 연꽃이나 연봉, 연꽃가지를 쫓을 수 있는 원공이 있는 지물을 들고 대좌는 연잎, 연꽃대좌이거나 방형대좌이다. 시자석은 동자석의 원형이라고 하지만 들고 있는 지물은 없고, 공수(拱手)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동자상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아무런 경전상의 배경 없이 지물의 표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조선전기 동자상의 예가 적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연봉가지가 일찍부터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17세기의 동자상에서는 두루마리와 시왕의 필기구인 벼루, 붓, 책 형태의 명부, 서과(瑞果), 서조(瑞鳥) 등 대부분의 지물을 볼 수 있다. 18세기에는 이 외에도 두루마리를 펼쳐서 들고 있거나, 책을 옆구리에 끼고 한 손으로 허리띠를 잡는 표현이 있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조선시대 동자상의 특징을 확립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지물로 가지, 병, 긴장대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 외에 드물게 보주나 향로, 병과 잔 등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기물을 드는 것은 나한도 동자상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불교동자상은 매우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자의 역할이 공양상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지만, 아마도 한번에 10구씩 조성해야 하는 현실적 배경에서 그러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양한 지물은 결과적으로 동자상에 보다 풍부한 상징을 담게 하였다.⁷³⁾

제주지역 동자석은 위에서 살펴본 동자석, 시자석 그리고 불교동자상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지물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내용면에서는 유교적이고 무속적인 특징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물에서는 유교적인 성격도 나타난다. 공수의 형태나 손과 관련된 표현은 불교동자상이나 시자석, 동자석에서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조사 개체 중에 공수의 모습이 가장 많았다. 육지 동자석이나 시자석처럼 불룩하게 소매를 표현하여 손을 넣은 모습을 표현한 것과 손가락 다섯 개를 세밀하게 조각하여 맞잡고 있다거나 일자형으로 처리하여 공수의 모습을 나타낸 것들도 있다.

73) 김춘실 앞의 책, p.298.

<그림 4> 제주지역 동자석 앞면의 손 표현과 지물.

			
공수, 훌	공수	창 형태	위 아래로 손
이세훈(李世薰) 1667~1696	김혜우(金惠雨) 1681~1760	진주강씨(晋州姜氏) 1754~1830	조용하(趙用夏) 1842~1923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무덤』 참고)

공수(拱手)는 존경의 표시로 팔을 소매 속으로 끼는 것을 뜻하므로 존경의 뜻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 하겠다.⁷⁴⁾

제주지역 동자석은 유교적인 요소로 표현은 되었지만 유교적 의미를 철저히 지킨 다기 보다, 일반적인 시동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훌의 경우는 다르다. 조사 개체 중에서 손 표현을 제외하고 지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는 것은 훌이다. 훌은 『경국대전』에 보면, 공복에는 복두를 쓰고 훌을 받쳐 드는데,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훌을, 5품에서 9품까지는 목훌을 들어 신분을 나타낸다. 전형적인 유교사회의 위계질서를 나타낸다.

제주에서 토평마을 고문서 중에서 포제 관련 문서를 보면 훌의 사용을 대략 알 수 있다. 오봉국씨 소장문서 중에서 ‘포제훌기’ 부분을 보면,

(26) 훌을 깨끗이 손을 씻은 다음 훌을 잡으면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훌을 깨끗이 세 번 향을 피워 올리고 폐백을 드리시오...술잔에 술을 따르면 인도하여 신위 앞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훌을 깨끗이 잔을 드린 다음 훌을 잡고 조금 물러나 훌을 깨끗이 축을 드린다.⁷⁵⁾

고 되어있다.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에서 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74) 공수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서 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홍대영, 『담헌서』, 「우러러 절한 다음, 공수(拱手 존경의 표시로 팔짱을 낀)하고 그의 오른쪽에 섰다」.

75) 고창석, 『탐라국 시대사』, 「제4장 토평마을의 고문서」, 서귀포문화원, 2007, p.397.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유교식 마을제의 성격을 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교적 신분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갖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홀의 원 의미가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예를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포제에서도 예를 올리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자’라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홀을 들게 한 것은 유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지물 역시 무속적인 성향이 더 많이 표현된다. 제주도 사료에서 뱀·무속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조선 중후기의 사회적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27) 지금도 광양, 차귀 등에 있는 음사에는 매일 굿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지방 사람들이 이들 귀신을 하늘같이 받들어 모셔 섬사람들의 생활은 이들 귀신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중략)...무릇 병이 나거나 집안에 상을 만나거나 또는 화나 복에 대하여 모두 당신에게 기구한다...(중략)...또한 뱀신평습이 성행한다.⁷⁶⁾

(27)은 17세기 뱀 풍습에 대한 기록으로 제주에 온 목사들이 제주를 묘사할 때 거의 등장하는 풍속이다. 유교식 상장례가 지속되나 여전히 무속은 이어진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내왓당 10신위 무신도에서도 이런 사회 상황을 볼 수 있다. 특히 뱀이 중심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내왓당 무신도는 제주의 풍토와 생활조건, 신앙 습속 등 사회 총체적인 관계와 밀접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무신도에서 참고할 지물은 뱀, 부채, 새이다.

내왓당 무신도에서는 부채를 중요한 상징으로 표현했는데 제주굿에서는 부채를 무구로 쓰지 않는다. 새의 이미지를 무신도에서 살펴보면, 본궁위 상군위, 홍아위 머리에 오리비녀가 있고, 제석위 지팡이에는 까마귀가 있다.

내왓당 무신도는 제주의 무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려진 독창적인 그림이다.⁷⁷⁾ 그래서 동자석과 마찬가지로 무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고, 동자석 지물의 의미 또한 이 그림과 비슷한 의미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에 표현된 새, 부채 등은 무(巫)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76) 김상헌 저, 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9, p.72.

77) 김유정, 「내왓당 10신위 무신도」, 『탐라문화』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유교적 상장례 의식에서도 무속적인 절차들이 확인되는 바, 석물들에서도 실제의 무속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도 불교적인 행사들이 확인되는데, 이것 역시 제주도 석물이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이다.

이상으로 제주지역 동자석의 형태를 머리, 복식, 지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동자석은 유교적, 불교적, 무속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조선후기 제주도 사회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 동자석의 기원을 다룰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육지 동자석의 모방이 아닌 제주도 묘제에서 제주지역 동자석이 가지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2. 동자석과 묘제의 상관관계

제주지역 동자석이 조선후기 제주도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은 앞서 알아보았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묘제는 조선시대 제주사회와 상장례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유교적 상장례 의식이 15세기부터 들어옴이 여러 기록을 통해 보이지만 제주사회가 무속을 바탕으로 토속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제주도 묘제에서도 토속신앙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동자석에서도 나타난다. 여타의 석물에서 나타나는 특징보다 제주지역 동자석이라는 석인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조선후기 제주 사회가 가진 복합적 문화의 소산이다.

제주지역의 유교식 상장례가 15세기 초부터 시작되고 있음이 보이는데 제주 무덤의 동자석이 육지 사대부 묘의 동자석과 극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유교적 상장례 문화의 전파가 15세기에 ‘기건’이라는 목사와 16세기의 ‘김정’이라는 유배인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묘제는 목사, 유배인, 토착세력에 의해 문화가 전파되어 토착신앙과 함께 이룩된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주목되는 사실은 조선시대 초기의 상장례와 묘제의 기원을 주도하는 이들 지배층이 재경사족(在京士族)이라는 점이다. 사료 속의 고봉례, 고봉

지, 고득중, 고상운, 고충언, 고준, 문충세, 문방귀의 고씨와 문씨 외에 전 주부 양심(梁心)도 재경관인이었다. 이러한 재경사족들이 제주지역에 조선시대 유교적 상장례 문화를 전파하여 중앙정부의 통치를 강화하고자하는 중앙의 노력도 사료에 나타난다. 이처럼 재경사족에 의한 상장례, 묘제의 전파가 초기에 이루어지다 이후 목사, 유배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제주지역에 유교식 묘제가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15세기 이후 재경사족들이 상경종사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제주지역과 단절이 되면서 16세기는 유배인에 의해 상장례문화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경제적으로 우세한 집단에 의해 상장례문화가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위에서 다룬 경주김씨가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만일 묘의 문인석, 동자석과 같이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분명히 다른 석물의 출현이 새로운 사회적 세력의 출현을 표현하는 것이다.

유교적 상장례 문화의 모습이 문인석이나 망주석으로도 표현되지만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상장례문화와 묘제는 재경사족과 산마감목관이라는 세력으로 대표되며 이는 제주지역 동자석이 가진 사회적 의미라고 하겠다.

또,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문화는 짧은 시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17, 18세기를 지나 19세기까지 이어져 제주도 묘제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 편년과 문중동자석 사례분석, 동자석의 형태 및 묘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에 참고 되는 서울·경기지역의 석인상은 시자석(侍子石)과 동자석(童子石)이다. 15세기 서울·경기지역 묘제에서 나타나는 시자석은 시중의 의미를 강조한 석인상으로 일부 문중 묘에서 확인된다. 지물이 없는 공수의 형태와 관복이 아닌 평상시의 복식을 하고 있는 시자석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의 형태에 참고가 된다. 서울·경기지역의 동자석은 16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아이모양의 석상이며 지물을 들고 있다.

이러한 동자석의 명칭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를 통해 볼 때, 16세기말부터 무덤 앞의 아이 모양의 석상을 ‘동자석’이라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까지 ‘동자석’이라는 용어는 아이 모양의 석상 외에도 무덤 주위 석주와 석주를 연결하는 ‘동자석주’를 뜻하는 의미로도 같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동자석주로서의 동자석의 의미는 사라지고, 무덤 앞의 아이 모양의 석인상을 뜻하는 용어로 정착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현재까지 사용되는 ‘동자석’이란 용어는 16세기말 이후 본토에서부터 사용되어온 것이다. 제주지역 동자석의 정확한 유래와 제작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16세기 본토에서 나타난 동자석 문화가 묘제의 전파와 함께 제주지역으로 유입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러나 형태에 있어 서울·경기지역의 동자석과 제주지역의 동자석이 서로 다르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 화북동 탐라성주 묘 석인상, 쌍상투 동자석, 15세기 제주지역 화강암문인석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원동 왕자묘 석인상과 화북동 탐라성주 묘 석인상은 편년이 정확하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주지역 석인상은 15세기 본토에서 들어온 화강암

문인석에서 출발하여, 16세기에는 제주현무암으로 만든 제주형문인석으로 나타났다. 이 문인석이 동자석의 유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제주지역 김만일의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7세기에 제주지역에서도 문인석과 동자석이 동시에 세워지고 있음은 제주형문인석 외에, 16세기 본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동자석 문화가 유입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동자석의 유래는 16세기 본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동자석 문화가 17세기 제주 묘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제주지역 동자석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는지를 현재 남아 있는 동자석을 편년별로 분석해 보았다. 편년이 정확한 207개의 개체 중에서 17세기는 12개, 18세기는 69개, 19세기는 83개이다. 17세기의 동자석은 머리 형태에서 민머리, 쪽진 머리, 뿔은 머리, 쌍상투 등이 골고루 나타나며, 복식은 간단하게 허리띠와 소매 등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또 앞모습은 지물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보다 공수나 손가락 표현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18세기는 상의를 중심으로 허리띠, 소매, 옷고름 등이 묘사되며 지물에서 창이나 숟가락, 뿔 등의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다. 점차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다양한 상황이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는 여전히 복식이나 머리 형태에서 17, 18세기의 특징들이 이어지지만 생략되고 단순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복식은 허리띠가 주로 표현되고 뿔은 머리와 머리의 표현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생겨난다. 지물에서는 공수의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15, 16세기의 제주지역 사회적 상황과 연계해 볼 때, 17세기부터 제주지역에 등장하는 동자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의 제주는 고득중 등 재경사족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의 유교적 상장례문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6세기는 유배인, 목사에 의해 상장례문화가 제주지역에서 주도되면서 제주현무암의 무덤 석인상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17세기에 제주지역 동자석이 문인석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경주김씨 문중을 대표하는 김만일 가문에서 확인된다.

17세기 경주김씨 문중 일부의 석물을 확인해 보면, 현마공신 김만일의 아버지 김이홍의 무덤에서도 화강암 문인석이 보인다. 그런데 김만일 본인의 무덤에서는 제주현무암의 문인석과, 얼굴형태가 비슷하지만 기능은 확실히 다름을 석물의 위

치로 구별한 동자석이 나타난다. 이는 김만일 후손들의 산마감목관으로서의 사회·경제적인 위상을 주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문화는 일반인에게 모범이나, 표준이 되어 조선후기 제주지역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셋째, 편년자료에서 분석한 제주지역 동자석의 형태는 『탐라순력도』, 『남사일록』, 『남환박물』 등에서 확인되는 17~19세기 제주지역 인물들의 반영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15, 16세기에 실제로 조선의 관원들이 거느리던 ‘동자’인 ‘중금(中禁)’의 기록이 보이는데, 이 중금(中禁)이 서울·경기지역 시자석, 동자석의 기원에 참고가 된다. 15세기말에 부활한 중금의 제도가 16세기 조선 관원들의 사가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시자석, 동자석의 유행시기와 비슷하다. 관원들이 거느리던 동자를 무덤 앞에 세우고자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형태에서는 시자석이 조선시대 평상복을 표현한 반면 동자석은 그 시기의 복식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주지역 동자석의 머리 형태, 복식, 지물은 대표적으로 『탐라순력도』에서 보이는 관노(官奴)인 시비(侍婢), 악공(樂工)처럼 실제 인물의 표현이다. 『탐라순력도』, 『남사일록』, 『남환박물』에서 17~18세기의 제주는 긴 두발 때문에 여성의 머리 형태가 뿔머리, 쪽진 머리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는 초기 제주지역 동자석에 나타나는 다양한 머리 형태로도 뒷받침 된다. 또 복식에 있어서는 일반민은 가죽 옷과 갈 옷으로 판단되는 열악한 수준이나 『탐라순력도』에 보이는 관노비들은 포(袍)로 판단되는 기본적인 겉옷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 동자석에 나타나는 복식은 포, 소매, 옷고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의 격식을 갖춘 복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와 달리 상의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전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물에서는 무속적, 유교적 특징이 뱀이나 방물 형태, 활(笏) 등으로 표현된다. 실제 존재한 지물을 통해 제주지역 동자석에 무속적인 의미가 더해진 셈이다.

이는 제주지역 동자석 문화를 시작한 주체가 그들의 무덤에 실제 시중을 드는 역할을 강조한 석인상을 세우고자 했으며, 17세기를 지나 18, 19세기에는 동자석이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상징과 정형화의 과정으로 정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경기지역 동자석과 달리 제주지역 동자석은 시중드는 석인상을 세우고자 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모습이 19세기까지 일반화되어 유지되

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17세기에 시작된 제주지역 동자석 문화는 상장례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의 교체로도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서울·경기지역 동자석문화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19세기까지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현존하는 17~19세기 제주지역 동자석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동자석 문화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의 제약 등으로 논의 전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문헌사료와 자료집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김상헌, 『청음집(淸陰集)』
이 건, 『규창집(葵窓集)』
이원진, 『탐라지(耽羅誌)』,
이원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이유원, 『임하필기(林下筆記)』
이유원, 『가오고략(嘉梧藁略)』
이익태, 『지영록(知瀛錄)』
이 증, 『남사일록(南槎日錄)』
이항복, 『백사집(白沙集)』,
이형상, 『남환박물(南宦博物)』
이형상,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조정철,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김상헌 저, 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9.
이 증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정헌영해처감록』, 제주문화원, 2006.

2. 연구논저

1) 단행본

- 장창언, 『제주의 동자석』, 제주돌문화공원, 2006.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세림, 2000.
경기도박물관, 『경기 묘제 석조 미술 (상)-도판편』, 경기도박물관, 2010.
—————, 『경기 묘제 석조 미술 (하)-도판편』, 경기도박물관, 2010.
—————, 『경기 묘제 석조 미술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기도박물관,
2010.

- 고창석, 『탐라국 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 구중희, 『능묘와 풍수문화』, 국학자료원,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죽은 자, 또한 산자의 공간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9.
- , 「제주의 민속문화-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궁중 행사도』1, 그래픽네트, 2010.
- 김경실, 『조선시대 궁중 진연 복식』, 경춘사, 2005.
- 김영돈, 『제주도의 석상·석구』,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50호, 제주도, 1968.
- 김천형, 『탐라문헌사료집』, 디딤돌, 2004.
- 문무병, 「동자석」, 『제주문화 상징』, 제주특별자치도, 2008.
- 신병주, 『조선 왕실 기록 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용인시, 『용인의 분묘문화』,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1.
-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제주대학교박물관, 『탐라성주 고봉례묘 추정지』,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 하원동 분묘군』,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0.
-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민속학강의』2, 민속원, 2010.

2) 논문

- 강창언, 김동섭 「제주석상에 관한 일연구」, 『제주도사연구』제7집, 제주도사연구회, 1998.
- 고부자, 「탐라순력도의 복식연구」,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제주도/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고부자, 「제주도민의 상례에 나타난 복식 - 호상옷과 상복」, 『제주도연구』2, 제주학회, 1985.
-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고씨 일가의 호구자료 분석」, 『탐라문화』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미영, 「조선시대 유교의례의 사회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 『국학연구』제14집, 한국국학진흥원, 2009.
- 김영익,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탐라문화』2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
- 김용덕, 「불교설화에서 동자 출현의 양상과 의미연구」, 『실천민속학연구』제15호, 실천민속학회, 2010.
- 김유정, 「제주의 무신도- 현존하는 내왓당 무신도 10신위 연구」, 『탐라문화』1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김이순, 「조선시대 능과 묘의 석물 비교」, 『경기묘제석조미술의 연구현황과 과제』, 경기도박물관, 2009.
- 김인호, 「제주도 고분에 대한 一見解」, 『제주도사연구』제4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 김은선, 「조선 사대부묘 석물의 이형 도상」, 『경기묘제석조미술의 연구현황과 과제』, 경기도박물관, 2009.
- 김은선, 「시흥 진주강씨묘역의 이형석인에 대하여」, 『경기도박물관관보』제6호, 경기도박물관, 2002.
- 김춘실, 「조선시대 불교동자상」, 『불교동자상』, 국립청주박물관, 2003.
- 문기선, 「제주 최초의 석상 조성적 조명 연구 보고」, 『인문학연구』10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 안호룡, 「조선 초기 상제의 불교적 요소」, 『한국고중세 사회의 구조와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 1988.
- 염경화, 「제주도 묘제 및 장례 풍습 소고」, 『한국민속학 일본민속학』Ⅲ,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이범직,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한국사상과 문화』제36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 이영배, 「묘지석상의 조형적 특징 고찰 -동자석의 제작과 형태비료 중심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1999.
- 이은주, 「석인상에 나타난 복식 연구」, 『경기묘제 석조미술』下-조선후기해설, 경기도박물관, 2008.
- 이주영, 권영숙, 「조선통신사행도를 통해 본 소동의 역할과 복식」, 한국복식학회 제57권 제5호 통권114호, 한국복식학회, 2007.

- 이창훈, 「제주동자석 고찰」, 『바람과 제주인의 삶』, 제주발전연구원·사단법인 제주학회, 2009.
- 장경희, 「조선후기 산릉도감의 장인 연구」, 『역사민속학』25, 민속원, 2007.
- 정해득, 「조선시대 경기지역 묘제석물 연구」, 『조선시대사학보』51권, 조선시대사학회, 2009.
-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의 신앙생활과 신당파괴사건」, 『탐라순력도 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한희숙, 「조선전기 장례문화와 귀후소」, 『조선시대 사학보』31권, 조선시대사학회, 2004.
- 현용준, 「제주도 뱀 설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David J. Nemth, 「Some Early Western Travellers to Cheju Island」, 『탐라문화』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3) 학위논문

- 정종수, 「조선 초기 상장의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고정하, 「제주도 상·장례 절차에 나타난 ‘토롱’의 교육적 의미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성은, 「제주도 돌문화와 조형디자인에 관한 연구 - 동자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소희, 「동자쌍계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김영아, 「안동지역의 조선시대 묘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우림, 「용인지역 분묘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용인대학교박물관 전통문화연구소, 2001.
- 김우림, 「서울·경기 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 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재홍, 「조선시대 영남지역 묘제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혜림, 「조선시대 동자석인 연구 -16~18세기 서울·경기지역 원과 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눈설미, 「제주지역 무속 복식의 유형과 특성」,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규복,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승현, 「댕기에 관한 연구 -댕기의 종류와 특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전나나, 「조선왕릉 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운득, 「제주석상에 관한 연구 -묘소의 동자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